FEB 7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50 1983년 2월 7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February 7,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집인 : 김운영
인쇄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핵발전소 "심각한 안전결함"

미 정기간행물 핵자문관 비밀서류 인용 보도

한국정부는 부인

(서울 4일=연합)미국의 2개 정기간행물이 미국의 핵자문관의 비밀서류를 인용, 한국의 핵발전소의 가동및 건설상에 "심각한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4일 이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동력자원부는 이날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가 전혀 안전상 문제점이 없으며 시설·가동·관리조직면에 있어 완전하다"고 밝히면서 작년 7월 미원자력통제위원회 빅터·길린스키씨가 2개의 원자력발전소에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동력자원부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가상하드라도 위험수준의 방사물질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기간행물인 '카운터스파이"와 "멀티내셔날 모니터"는 3일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위한 대부에 있어 안전관리문제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北韓의 準戰時체제 선포 한반도 緊張고조의 행위"

6일 訪韓예정 슐츠 美國務 강조

오는 6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 조지·슐츠 미국무성장관은 2일 북경에서 「북한의 준전시체제선포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며, 북한이 이같은 행동을 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 UN군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제임스·스톰스 미해군소장은 2일 상오 「31일 있은 북한 폭격기의 한국영공 침해는 심각한 휴전협정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측은 이에 대해 「한국군 고사포부대가 IL-28 제트전폭기에 3백발이상의 대공포를 쏘아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톰스 UN군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는 「한국군이 서울서방 배령도상공을 5Km침범한 소련제 북한폭격기에 대해 수발의 위협사격만을 가했으며, 북한폭격기는 곧 도주했다」고 밝혔다.

슐츠방한일정 발표

전대통령 면담

(서울 3일=연합)외무부는 6일부터 2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하는 조지·슐츠 미국무장관의 공식 일정을 발표, 7일 오전 청화대에서 전두환대통령과 면담하고 함께 오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슐츠장관은 이외에도 김상협 국무총리및 이범석 외무장관과 만난다.

이규현 대사 귀국

공관장회의, 22일귀임

◆이규현 대사

(오타와=이태은지국장) 이규현 주캐나다대사가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 해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귀국했다.

이대사는 22일경 오타와로 귀임할 예정이라고 대사관측이 밝혔다.

아세안수뇌 한국초청

태평양정상회담 실현위해

(서울 4일=연합)지난해 전두환대통령이 제의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상회담을 실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금년중에 아세안(ASEAN)국가 지도자를 한국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이범석 외무부장관이 4일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전대통령에게 83년도 외무부사업을 보고하면서 정부는 또한 태평양지역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이 지역의 각종 민간회의의 지원과 아울러 기타 필요한 외교활동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아세안 5개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를 순방했었다.

◆강제추방명령에 의해 국경초소를 넘는 가나인들에게 곤봉세례와 채찍을 가하는 나이제리아 군인들. (관련기사 2면에)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짐바브웨 반정진압군

북한서 훈련시킨 군인

(마타벨레랜드, 짐바브웨-외신)짐바브웨정부가 반정부폭도들을 색출진압키 위해 투입한 정부보안군은 북한군사고문단이 훈련시킨 제5연대소속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란진압보안군대는 지난주부터 전개된 반군색출작전에서 반군동조혐의가 있는 마을을 불태우고 임신중인 여인을 살해하는 등 무자비한 양민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색출작전은 짐바브웨중부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단행되고 있으며 보안군은 방화, 사살, 납치, 파괴등 잔인한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

오늘의 예금금리(1/25부터)

기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		8%
90일	9.5%		8.5%
180일	9.5%	9.25%	8.5%
365일	9.5%	9.2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올해 캐나다경제 전망

엄승용 (B.C.주정부 경제분석관)

1982년은 캐나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후퇴(Recession)에 직면하여 늘어나는 실업, 계속되는 인프레등 소위 Stagflation(불경기와 인프레가 병행한다는 경제용어)으로 고민해 왔다. 캐나다의 GNP(캐나다 내의 국민생산가치를 총 합한것)는 물가변동을 포함한 경상가격가치 기준으로 약 3,484억달러로서 전년보다 5.2% 늘었으나 동기간중 물가상승율이 10.4%나 되어 실질적으로는 4.8%라는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했다.

다시말하면 국민경제의 실질 규모가 전년보다 4.8%나 축소한 셈이다. 이러한 「마이너스」성장은 근년에 없었던 현상으로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연평균 5.0%의 「프라스」성장과 1971년부터 1980년까지의 평균 4.0%의 「프라스」성장에 비할때 근래에 드문 경제후퇴인 것이다. 이같은 경기후퇴는 우리피부에 직감되는 실업율에 반영되어 1981년에는 7.6%이던것이 11.0%로 껑충뛰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의 수가 캐나다 전체에 무려 120만명을 돌파하여 1930년대 대공황이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금년 2% 실질성장 기대

지난해 4.8% 『마이너스』성장

그러면 이러한 경기후퇴의 경제적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GNP의 70%가량 차지하는 소비수요는 년중 18%~19%라는 높은 이자율때문에 크게 위축당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냉장고, 가구등 내구 소비재가 판매부진으로 재고누증, 생산감축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수요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소비심리감퇴,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때문에 주택건설부진, 공장시설수요위축 등으로 반영되어 경기전반에 침체상태를 가져오게 되었다. 수출수요도 주요대상국인 미국경제가 「스럼프」에 들어감으로써 미국에의 수출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1982년을 넘기고 1983년을 전망해 볼때는 지난해보다 다소 희망적인 경제요소가 싹트고 있으나 그 성장회복력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급속하게 진전할 것 같지 않고 서서히 회복할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인것 같다. 구체적으로 볼때 캐나다는 83년에는 GNP성장율이 전년의 4.8%후퇴에서 2%정도로 반전될 것이며, 1984년에는 3.0%로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장의 주요요인으로는 1982년 후반기부터 수그러지기 시작한 이자율이 안정 또는 하락한다면 내구소비재, 주택건설이 다른 부문보다 앞서서 활발해질 것이며 미국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캐나다수출경기도 1983년 중반후부터 호전될 것이다. 캐나다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온타리오」경제의 주축인 제조공업과 자원산업을 본다면 1982년에 12%라는 감소를 면치 못했던 온타리오제조업은 6~7%라는 착실한 성장을 실현할 것이며, OPEC 석유가의 안정내지 인하는 자동차산업에 박차를 가하는 큰 요인이 될것같다. 또한 중간원재료인 금속광물생산, 철강생산등도 미국경제선도력에 힘입어 점차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2억달러이상의 연방및 주정부 고용증대 대책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1983년에는 온타리오주만해도 전년보다 약 10만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같은 희망적인 83년의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경기회복성패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연방정부의 230억달러이상의 적자규모가 민간자본시장을 압박하여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중앙은행국채인수형식으로 통화증발을 하여 모처럼 견제해온 인프레를 조장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일부에 대두하고 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수요확장을 통한 생산회복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생산과 소득에 끼치는 효과가 클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미국연방은행의 금리정책이 통화량이나 물가통제수단으로 지나치게 구사됨으로서 국내 수요를 질식시키는 고금리정책으로 환원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으나 미국 불경기의 체험에 비추어 미국 행정부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고용증대에 정책우선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같다.

◉셋째, 작년6월예산에서 정부가 발표한 임금정책에 따라 5%로 임금인상을 규제한다는 정부시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종전과 같은 임금·물가의 나선적 상승을 재발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상 세가지 정책문제가 경기회복을 크게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향되지 않는다면 금년도 캐나다경제는 착실히 회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점차적인 높은 고용수준으로 접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UNLIFE
백용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미도파에서는 다가오는 구정을
기하여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
친지들께 선물을 보내시려는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져
각종 선물용품과 금은보석,
고급시계, 양품, 화장품,
각종 비타민, 한약, 모피와
의류품을 다량으로 준비하였사오니
이 기회에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백화점 대표 장추신 배

썬그라스
◉83년도 프랑스제
폴라벨
다량입하
$29.00
~~$59.00~~(REG.)

테스트쵸이스커피
8 oz
특별세일가격
$5.49
~~$7.99~~(REG.)

40-50% OFF

미도파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6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전 페어뷰소유 아파트 10,930채

관리운영권 「온」주정부로 이양

전 캐딜락·페어뷰 소유의 메트로토론토내 아파트 10,930채의 관리운영권이 마침내 온타리오 주정부로 이양되었다.

3일 윌렴·파카 온타리오주 최고법원 대법관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당분간 이 아파트건물을 접수할 권한을 부여했다.

뒤이어 로버트·엘지 온타리오주 소비성장관은 주의회에서 전 캐딜락·페어뷰 소유의 아파트 건물 임대자들은 앞으로 집세 수표에다 수령자이름을 클락슨·회사(Clarkson Co.)로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의 판결로 아파트건물이 팔린 이후부터 관리를 받아온 메이스필드 건물관리회사의 사무실에는 이날부로 클락슨회사가 들어서며 앞으로 클락슨회사는 건물관리및 리스갱신등을 주정부로 위임받았다.

문제의 이 아파트 건물은 원소유주인 캐딜락·페어뷰회사가 작년 11월 레오나드·로젠버그라는 유태계 투자가의 그레이맥 신용회사에 2억7천만달러에 팔았던 것이다.

그레이맥회사는 명의도 채 바꾸지 않은채 다시 이 건물을 윌더킨이라는 회사로 넘겼고, 며칠만에 건물들은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가들이 주로 콘트롤하고 있는 50여개의 투자회사에 5억달러에 넘겨졌다. 이 회사들의 명칭은 온타리오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예: Ontario 212)

이들 사우디투자가들이 콘트롤하는 회사로 일단 넘어간 뒤에는 아파트건물관리는 메이즈필드라는 회사로 넘어갔었다.

이날 온타리오주정부에 건물관리권이 넘겨지기전까지 세든 사람들은 11~19.5%정도로 임대료가 인상될 것으로 경고를 받았었다.

온타리오주 렌트법에 따르면 보통 아파트의 새 주인은 건물모기지및 관리비등이 오를 경우에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연7%의 법적인상폭 이상의 렌트인상을 승인받게 된다.

이 아파트건물의 모기지를 잡고 있는 크라운·트러스트, 그레이맥·트러스트, 시웨·트러스트등 회사들은 현재 온타리오주 정부에 의해 접수되었다. 주 정부는 이들회사들이 동 건물판매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월 돌연 이들 회사의 소유권을 박탈, 권한을 정부가 대행해왔다.

현대자동차 주소 변경

현대자동차 캐나다회사의 토론토 사무실 주소가 변경되었다.

지금까지 #1701-4 Forest Laneway Willowdale Tor. Ont. M2N 5X8에 소재했던 현대는 마캄지역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사하였는데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다음 새 주소로 하면 된다.

◉주소: 96 Steelcase Rd. W. Markham, Ont. L3R 2R8

◉전화: (416)477-0202~13

◉Telex: 06-986306 HDPONY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가나불법이민자 추방

나이제리아정부, 실직자 감소위해

나이제리아 정부의 가나불법이민자 강제추방령으로 인해 나이제리아와 가나 국경엔 난데없는 유목민떼들의 수라장이 일고 있다.

2주전 나이제리아정부는 약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가나인들에게 본국으로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나이제리아는 너무 많은 외국인들의 불법체재로 인한 실직과, 증대하는 범죄율을 두려워하여 이같은 강제조치를 취했는데 추방명령을 당한 가나인들은 나이제라아 군인들의 곤봉세례와 채찍질을 맞으며 먼지를 뒤집어 쓴채 무리지어 국경을 넘어가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열린 국경초소 근방엔 약 6~80만명의 무리들이 장사진을 이룬채 수많은 난민들이 기아와 충격, 그리고 갈증과 극도의 피로에 지쳐있다.

지금까지의 발표로는 약 30명정도로 사망했고 136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가나인들은 베닌과 토고를 지나는 육로를 통해 본국으로 가고 있으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많아 군데군데 도중에 임시막사를 만들고 야영하고 있다. 피난중 가장 힘든 문제는 식량난과 만연하는 질병들이다.

또한 야영동안 일어날 각종 폭동과 행진중에 일어난 도난위험, 약탈범들이다.

그간 EC에서는 6백만불의 기금을 피난민을 위해 기부했고 캐나다의 적십자요원들은 현지에서 의료와 식료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교황도 이에 대해 가공할만한 믿지못할 처사라고 비난했다.

「예수는 조작」강좌 취소

개강첫날 수강생 4명뿐

지난주' 토론토대학교(U. of T.)에린데일분교 야간코스에 포함됐던 「예수그리스도는 조작이었다」라는 10주간의 강좌는 교계에 물의를 빚었으나 막상 개강첫날인 2일 4명의 수강생만이 등록 인원미달로 취소되었다.

담당자들은 이 코스가 기성종교에 대해 식상한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선전했었다.

한 소식통은 학교가 기성종교를 공격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느낀 때문에 수강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초보자 위한 콤퓨터강좌

콤퓨터협회 신년사업발표

캐나다 한인콤퓨터협회 COSKA는 83년도 사업으로 교민을 위한 콤퓨터 강좌 및 초보자를 위한 콤퓨터·랭기지(Computer Language) 강좌를 실시하며, 한국어학교 특별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지난주말 발표했다.

이날 발행된 정기 뉴스레터 제47호에서 밝혀진 신년도사업에 따르면 COSKA는 이외에도 재미과학자협회 온타리오지부와 콤퓨터에 관한 공동사업추진 계획등이다.

한편 지난 12월2일 임원회에서 확정된 COSKA 83년도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김남수(온타리오 하이드로), 한혜식(주정부 감사), 이태영(스코시아은행)
◉특별사업 대외고문: 김영철(Honeywell)
◉특별사업 대내고문: 최승남(Baskin-Robbins)
◉회장: 박성수(이튼즈)
◉부회장: 정재열(U of T)
◉총무: 이태용(Quantum)
◉서기: 강영수(Scotiabank)
◉회계: 이윤호(Alltrans)
◉친교봉사: 유근하(Honeywell)
◉교육: 정소량(IBM), 이찬복(IBM)

동우회 정기총회

12일 한인회관

토론토 동우회 제6차 정기총회가 12일(토) 오후7시 한인회관(20 Mobile Dr.)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의 주요안건은 (1)82년도 사업보고 (2)82년도 감사보고 (3) 82년도 결산보고 (4) 제6대 회장선거 (5)이사선임위원 선출 등이다.

▷금주의 행사▷

1983년2월7일(월) ~13일(일)

◆1983년2월11일(금) ~20일(일) 정오-하오 10:30 토론토 국제자동차쇼
곳: 인터네셔널센터(에어포트·로드)

◆2월12일(토) 하오7시 동우회 제6차 정기총회
곳: 한인회관강당(20 Mobile Dr. Tor.)
연락처: 677-6506

◆2월12일(토) 하오3시 세방여행사 개업 리셉션
(720 Spadina Ave. #104. Tor.)
연락처: 928-3335

◆2월13일(일) 하오4시 한맘청년회총회
연락처: 746-3308(최영호)

◆2월13일(일) 상오11시부터 선련사 구정 정초법요식
연락처 533-6911, 532-2491

◆2월18일(금) 하오7시 한인회 친교와 대화의 밤
곳: 한인회관
연락처: 755-9288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64>

이상한 女人 ⑨

두봉은 불안에 떨며 女人의 집을 찾아…

시체에 손을 댄것은 누이였다. 그가 겁에 질려 떨고있자 그의누이가 팔을 걷고 나서서 시체를 처리해 버린 것이었다. 그것을보고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누이에게 그렇게 독한 일면이 있는지는 정말상상도 못했었다. 누이가 시체를토막내자 그는 포장과 운반을 맡았다. 포장하는 동안 그는 몇번이나 토해야했다.

그는 지금도 누이의 그 잔인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 누이는 아마도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해석 하고싶었다. 그렇게 해석 하려고 노력하는데도불구하고 그는 문득문득 누이의 그 잔인성에 자기도 모르게 치를 떨곤하는 것이었다. 잔인한 면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한 모양 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아마는 사실이 그렇다하더라도 경찰은 여자보다 남자쪽에 더 혐의를 둘 것이다.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겠는가. 네가 모세를 독살시킨 다음 토막낸 것이야. 경찰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제를 따진다면 애초에 누이의 일에 손을 댄 것이 잘못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위인이 못되었다.

어느 새 날이 저물고 있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그가 기억해두고있는 곳으로 향했다.

택시를 내린 곳은 어느 서민아파트단지였다. 단지가 매우 컸다. 이런 곳이라면 숨어있기에 적격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단지안을 걸어가다가 이윽고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위를 쳐다보았다. 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왜 이곳까지 오게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수가없었다.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곳은 그 정체불명의 여인이 들어갔던 곳이었다. 낮에 그는 그 여인을 미행했었다.

그는 아무래도 자신이 그곳에서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범죄자는 범죄자를 찾는다는 말이있는데 나도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온 것일까. 그 여인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단지 육감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좀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그 여인은 경찰 끄나불이 아니라면 범법자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녀가 범법자라면 우리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존공생하기 위해서 함께 협조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그런데 만일 저 안에 그녀 혼자있지않고 남자도 있다면?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일까? 모세와관계있던 여인일까? 어떻게 범죄사실을 그렇게 소상히 알고있을까? 문자가 경찰에 연행된 것은 그 여인의 고자질 때문이 아닐까?

그는 거의 한시간 동안이나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는그곳을 떠날수도 안떠날수도없었다. 추위에 몸은 잔뜩 얼어붙어있었다.

마침내 그는 그 여인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부딪쳐보지 않고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수가 없었기때문이다.

朴 男 그림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⑧

군사법정에서

유죄로 입증된 것은 다만 한가지― 내 책상서랍에서 나온 미화 7천5백달러였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외환관리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그외에는 아무것도 죄로 실증되지 못했다

이북 간첩의 증언

2심공판때 북한의 전 스파이로 77년에 이바라기께엔본부 전 의장 윤효동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자기부하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회의)의 한 인사(윤효동의 증언에 따르면 한민통조직국장인 곽동의)를 이북으로 보내 교육받게 했다고 한다. 이 부하가 한민통 소속이니까 한민통은 용공(容共)단체이다. 이같이 주장하기 위해 검찰은 윤을 법정에 세웠던 것이다.

검찰측과 내 변호사측 심문후 끝으로 내가 직접 반대심문을 시작했다. 그런데, 하느님의 섭리였는지, 주고 받은 말은 아래와 같다.

"당신은 한민통 내부에 이북의 간첩인 당신부하가 있다고 말했다. 그 부하로부터 나에 대해 늘 보고받았는가?"

"받았읍니다."

"한민통의 모임에서 내가 공산주의자를 조금이라도 관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보고를 들은 일이 있는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민통의 회의에서 강조한 말―「만약 당신들이 나와 함께 한민통을 만든다면, 세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첫째로, 대한민국 절대지지, 둘째로, 우선 남쪽에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고 민주정권의 손으로 통일을 이룬다. 말하자면 『선(先)민주, 후통일』의 방침, 세째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념일이 8.15해방기념일과 같은 날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중지할 것. 이상 세가지를 받아들이겠는가?」하고 내가 주장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가?"

"받았읍니다."

"8월15일의 해방기념일에 대해서는 쌍방이 준비위원회에서 이미 준비했으므로 그만둘 수는 없다고 하므로, 나는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린 얘기를 들었는가?"

"들었읍니다."

검찰 의도 빗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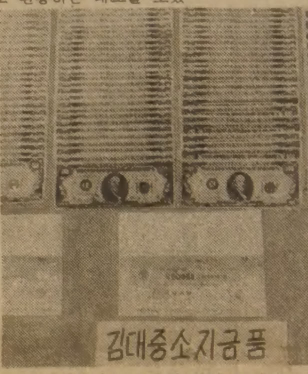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질문응답의 결과로 내가 한민통을 「용공」이 아니라 반공지지쪽으로 이끌고 갔다는 것을 윤효동이 전부 실증해 주고 말았다.

검찰은 이에 당황했고 나는 법정을 완전 장악했다. 윤은 10여차례에 걸친 나의 질문에 대해 단 한번도 나에게 불리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 당시는 계엄령하였으므로 그가 만약 "그래요. 내 부하한테서 들었읍니다. 당신은 표면상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으로는 북을 지지하고 있읍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당신도 그러함을 똑똑히 인정해 주시오." 식으로 말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나는 일본에 있는 한민통사람들을 한국의 법정으로 데려와서 증인으로 세우기가 불가능하므로 나는 죄를 완전히 뒤엎어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윤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 그가 어찌하여 저렇게 답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정말 주의 구원이었다.

당시 나는 육군형무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곳 헌병들은 윤효동의 증언으로 재판의 진상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검찰증인이 내 결백 역증명

사람있는 곳에 인정과 양심있다



◆김대중씨가 소유한 불법 외화라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사진

손잡고 우는 헌병

한 헌병은 내가 80년11월3일 2심공판에서도 사형판결을 받았을때 내 손을 꽉잡고 "선생님, 이럴 수가 있읍니까?"하고 울먹이며, "선생님은 재판에 이기고, 판정에 졌읍니다."하고 분개했다.

1심공판때 법무사 이외의 사람들은 나에게 적의를 품지 않았다. "사람 있는 곳, 어디에나 양심이 있고, 사람 있는 곳, 어디에나 인정이 있다. 그러기에 사람은 살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같은 극한상황속에서도 역시 존경하는 사람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럴때마다 나는 큰 위로를 느꼈다. (계 속)

"마음만은 자유향해 날고있다"

—이철수씨 옥중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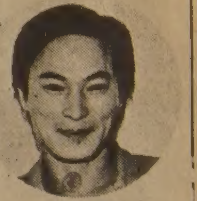
『오는 8월15일 내 생일은 샌퀀틴교도소가 아닌 자유의 바깥 세상에서 맞이하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나를 도와주신 수백명의 교포들을 공원에 초청하여 불고기파티를 열면서 피크닉을 하는 꿈을 몇번이나 꿨읍니다』―제2사건의 원심파기가 결정된후 이철수씨의 표정은 전과는 너무나 달랐다. 2일 상오9시50분 샌프란시스코 샌퀀틴교도소 메인빌딩에서 본보기자와 2시간30분동안 인터뷰한 이철수씨는 전에 찾아볼수없는 명랑한 얼굴이었으며 자신의 미래설계에 여념이 없었다. (LA지사)

『저의 몸은 교도소안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밖을 날아다니고 있읍니다. 김치찌개와 팥죽이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그는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있었다.

이철수씨(30)는지난해 제1사건(차이나타운 갱사건)이 무죄로 판결났을때 법정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에게 이그러진 분노의 표정을보여 주위에서 달랜적도 있었다.

『요즘은 제가 바깥세상에 나가 사회적응을 어떻게 할수있을까만 연구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도 교도소내에서 구독하고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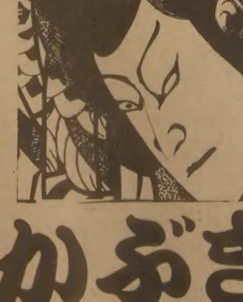
이철수씨는 제2사건 원심파기가 자신에게는 1심무죄판결때보다 더 감격스럽다고 했다. 제2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기때문에 다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유죄, 무죄에 관계없이 석방될것으로 생각한다는것.



▲이 철 수씨

『검찰이 항고하지않으면 4월쯤에는 석방될 것입니다. 설령 법원의 결정이 늦어진다하더라도 8월15일 내 생일때는 여러분과 야유회를 갖게 될것입니다』

인터뷰가 끝난후 다시 교도소감방으로 돌아가면 이철수씨는 뒤를 돌아보며 몇번이나 손을 흔드는등 여유를 보였다. 그의 발걸음은 나비처럼 사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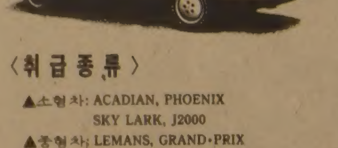
かぶき
ステーキハウス
새로이 스시바 오픈!
KABUKI
JAPANESE STEAKHOUSE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Just across the street from the Hotel
reservations accepted

Camelot Creations
(Div. of Sunglass Promotions Inc.)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 매 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 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Available 15% Discount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5125 Steeles Avenue West
Weston, Ontario
M9L 1R5
Bus: (416) 742-6336
742-6339
RAVI RAWANA

성동고등학교
정기총회공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여
성동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을 맞이하여 신임 회장단과
새로운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위하여 83년 첫 정기총회겸 사업
계획 보고가 있겠읍니다.
동문께서 부부동반하여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부회장 이영규 923-3060
총 무 윤길웅 633-5231
때 : 1983년 2월12일 토요일
오후 8 시30분
장소 : 동 궁 식 당 ☎ : 757-6334
1416 Victoria Pk. Ave.
성동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고 광 남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익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런던 소식

◉지국주소:
Mr. Sang K. Kang
506 Talbot St.
London Ont.
(519)681-6925
(519)432-5931

◆강 상 권 지국장

런던지구실업인협회 창설

초대회장에 최기운씨,이사장에 마광훈씨

◆최기운씨

(런던=강상권지국장)런던지구 실업인협회가 지역내 22명의 코너·스토어 경영주들이 모인 가운데 1월29일 탄생되었다.

이날 7시 런던시내 하워드·존스·홀에서 열린 런던실협 창립총회에서 최기운씨(45세)가 초대 회장에, 이사장에 마광훈씨(43세)가 각각 선출되었다.

정준철 창립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회순통과로 이어진 이날 총회에서 3명의 회장후보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최씨가 과반수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이사에는 김택수·강상권·이일환·김경제·서정선씨등이 선출되었다.

최회장은 취임인사에서 "사심을 버리고 협력과 단결로서 뭉쳐야만이 보다 나은 권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런던실협의 온타리오실협(토론토)에 가입여부에 대한 토론을 일임하여 다음 총회에서 결론짓기로 하고 10시에 폐회하고 파티로 들어갔다.

런던「불고기 하우스」
현지신문서 대서특필

◆정일송씨

온타리오주 런던시의 유일한 한국인 식당인 불고기 하우스가 지난년말 런던·프리·프레스 신문에서 "82년도의 가장 맛있고 매력적인 성의가 담긴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으로 뽑혔다.

런던 시내(631 Commissioner Rd. E. 681-4050)에 자리잡은 이 불고기 하우스는 전 런던한인회장 정일송씨가 82년 1월29일 개업한 한국음식점이다.

프리·프레스는 지난 12월31일자 신문 연예란 1면 전면을 할애 불고기 하우스를 소개했다.

불고기 하우스는 불고기, 갈비, 돼지구이 정식, 만두, 조기, 새우튀김등을 메뉴로 내놓고 있다.

불고기 하우스의 주인 정씨는 신문에서 칭찬을 받아 비지네스에도 크게 도움이 돼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만 될 정도로 바빠졌다면서 한국음식에 대한 긍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교민동정

◆김지일박사(토론토 서강대동창회장)=모친 최마리아(82)여사 별세 급보를 받고 지난 3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병권(대한체육회 지부장)=4개월간 한국서 지내고 며칠전 토론토로 돌아왔다.

한국체류중에는 체육회 본부와의 사무연락, 행사계획, 협의, 앞으로의 할일등을 구상하였다고.

한국·캐나다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49 BLOOR ST
☎: 532-7907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의 자랑입니다
▲광고문의: 533-2361~4
▲구독신청: 533-2361

새 映画

절망적 두사람이 몸부림치지만…

쏘피의 선택
〈Sophie's Choice〉

고전미와 낭만이 함께 있는 강렬한 작품이다. 윌렴·스타이론의 작품을 영상화한 이 영화는 절망적인 두사람이 허무를 감싸고 사랑으로 몸부림치나 우리에겐 결국 구원이 없다는 숙명론을 보여줘 앨란J.패쿨라감독의 치밀한 연출력에 감탄하면서도 시달리다 못해 가슴이 비인다.

1940년대 후반, 작가지망생 스팅고(피터·맥니콜)는 브룩클린의 한 하숙집에 거처를 정하면서 동거하는 쏘피(메릴·스트립)와 네이산(케빈·클라인)과 조우한다. 폴랜드인인 쏘피는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처절한 과거를 살아 남은 여인이며 유태인인 네이산은 해박함과 유모와 잔인성을 모두 가진 광인.

쏘피는 그 결과가 현재까지 모질게 물고 늘어지는 선택을 한번 한 여자로 수용소에서의 치욕과 혼자 살아 남은 사람으로서의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또 한번 버림 받고 싶지 않아 목마른 사람처럼 네이산의 사랑에 매달린다. 네이산은 수백만의 동족이 살해당한 분노를 살아남은 쏘피에게 퍼부으면서도 연민과 사랑을 쏟는데 그의 분노는 인간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데 대한 것이면서 광인이어야 하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저주, 그의 쏘피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연민인데 그는 사랑이 품고 있는 용서의 뜻과 이를 거부하는 증오때문에 더욱 미쳐간다. 영화는 매달리고 거절하는 두사람의 폭풍같은 삶을 잔인할 정도로 대조시켜가며 절망과 허무의 무서움을 끄끄하게 엮어간다.

이 작품은 그 내용의 진지함과 연출력이 모두 훌륭하지만 압도적인 것은 스트립과 클라인의 연기.

스트립이 육감적이며, 우수에 찬 모습으로 공허에 빠져 허무적이고 희망을 향해 울부짖는 연기와 클라인의 자조와 분노 그리고 연민과 사랑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됐다 아이같이 부드러워지는 모습은 화면에 모질할 만큼 가득하다. 그러나 스트립의 연기가 틀에 박혀버리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니버셜사 등급R)

▲세상의 떠돌이별 쏘피와 네이한은 허무를 벗어나 마지막 선택을 한다.

주간女性 (416) 533-2361

마피아犯罪조직 완전파악

(워싱턴-AP·UPI종합) 미국의 악명높은 범죄조직 마피아의 전모가 27일 연방수사국(FBI)책임자의 의회증인으로 세상에 밝혀졌다.

윌리엄 H·웹스터FBI국장은 이날 상원법사위원회에서 행한 공개청문회증언을 통해 통칭「마피아」로 알려진 전국범죄조직 라·코사·노스트라는 2천명이상의 정회원과 2만명이상의 준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25개의 가문과 전체조직을 통솔하는 한대표기구로 구성돼있다고 밝혔다.

웹스터국장은 FBI가 그동안 마피아소탕작전을 강화, 작년한해동안 3백50명을 처벌받도록 했으며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갱들도 3백명이상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웹스터국장은 FBI의 성공적인 작전으로 이제 모든 범죄조직갱들은 더이상 음지에서 안전할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FBI가 두목급까지 파악함에 따라 행동내원들도 처벌받지않고 무사할수 있다는 보호의식대신 위기감을 새삼느끼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웹스터국장의 증언이 끝난뒤 한보좌관은 마피아대표기구가 경찰의 침투를 우려 1957년 신입회원 채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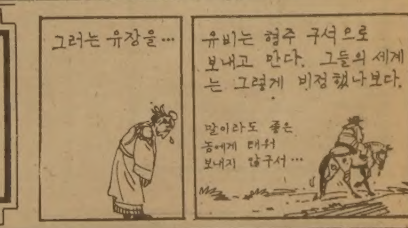
이보좌관은 FBI가 당시 뉴욕아팔라친에서 열린 75명의 두목회의장을 덮친이후 단행된 마피아의 회원 채용동결조치는 1972년까지 15년동안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보좌관은 그러나 최근 FBI의 마피아소탕성공때문에 갱대표기구가 다시 회원채용을 동결했는지의 여부는 알수없다고 말했는데 웹스터국장은 의회증언중『마피아가 최근들어 잔뜩 경계심을 갖고 측근이나 믿을수 있는 인물만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三國志 557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한국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6년간 정통 중화요리를 자랑스럽게
봉사 해 왔읍니다.

WE SERVE
KOREANS FOR
OVER 26 YEARS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석이 준비 되어 있읍니다.

영업시간:
11 : 30am.
2 : 30 a.m.

SAI WOO™

SAI WOO RESTAURANT & TAVERN
130 DUNDAS ST.W. TOR ☎: 977-4988

ALOHA RESTAURANT

영업시간:
11 : 30a.m.
11 : 30p.m.

ALOHA RESTAURANT & TAVERN
123A DUNDAS ST.W. TOR ☎: 977-3438

한국일보

混線빚는 「國土개발」

비슷한法令 20개 相衝

公務員도 法적용 右往左往

건축法등 대상지역 중복 建物主당황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날로팽창하는 도시 발전에 대비하기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령이 너무 많아복잡하고 상충되는게많고 이에 따른 계획도 조정하기가 무척힘들다.

모두합쳐 20여개가넘는 이 같은 법령과 계획은 이름은 물론 규정하고있는 계획과내용까지도 서로비슷비슷해 전국각급기관의 담당공무원 마저도 어느법령이 상위법이고 어느것이 우선계획인지 조차 모르고 있을정도다.

또 일부 관계자들은 단지를 개발하거나 교량을 건설하려해도 어느법령과 계획을 적용하고 따를 것인지를 가리지못해 상부관청에 문의를 하는등 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각종 민원까지 일어나고있다.

심한 경우는 2가지법령이 정면으로 상충되는 경우까지 자주생겨효율적인정비가절실하다. 국토 개발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현행법령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구획정리사업법 ▲공업배치법등 10가지나 된다.

또 이들 법령에 따른 각종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도권정비기본계획(입안중)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각종 도시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설계 ▲택지개발계획 ▲공업배치기본계획등 9가지나되는데 이 가운데 국토건설종합계획은 전국건설종합계획 안에 특정지역 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 계획을세분하고 토지이용계획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나뉘어져있다.

거기다 공원법·도로법·하천법등 관계법령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법의 밀림속」에 파묻혀있는 실정이다.

이 많은 법령들가운데 내용 상충으로 문제가 되고있는것이 지난해 연말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때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서울시와 한강이북의 경기도 일부지역을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학교·공장·업무용건물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이전을 촉진함은 물론 『인구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인구유발요인이 되는 건물의 신축을 억제한다는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이에반해 개정도시 재개발법은 불량건물을 헐고 대형빌딩을 새로짓는 도심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위해 민간인에게도 토지 수용권을 주고 더큰 건물을 지을수있도록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해말 본법만 공포됐고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작업이 진행중인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령과규칙이 발효되면 도시재개발법과의 상충이 불가피해질것 같다.

재개발사업과 「도시설계」도 상충요소가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 재개발법에따른 사업이고 도시설계는 건축법에따른 사업인데, 실제로 이두가지사업의 대상지역이 중복되는경우가 있어 관계자주와 건물주들이 당황하고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18일 확정발표한 도시설계는 世宗路·太平路·鐘路·乙支路등 서울의 4개간선도로변 29만3천평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이지역 대부분이 이미 재개발지역으로묶여있다. 문제는 도시설계에의한 건축계획과 재개발사업에의한 건축계획이 같지 않은데 있다.

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두가지로 나뉘어져있으며 주관부서도 서로다르고 건축을 할경우 적용법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어느 계획에 따라야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된 각종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불가능용도및 용적률, 건폐율, 높이등에대한 제한도 제각각이고 이것들은 또 시·도지사의 행정방침에따라 다시 제약을 받아 도시마다 다르다.

9개용도지역(주거·준주거·주거전용·상업·공업·준공업·공업전용·자연녹지·생산녹지) 안에 짓는 건물의 면적·건폐율·용적률·용도가 모두다르게되며 또 12개 용도지구(풍치·미관·고도·아파트·공지·공항·방화·교육및연구·보존·특정가구정비·주차장정비·업무)는 어떤곳은 4가지를 모두 제한하고있으나 어떤곳은 3가지사항만 제한하는등 제한내용이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실정이다.

각종법령 및 계획연계도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건설종합계획
  - 전국건설종합계획
  -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 도 건설종합계획
  - 군 건설종합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 토지이용계획
  -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공업배치법
  - 공업배치기본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기본계획
- 도시계획법
  - 도시기본계획
  - 도시(재정비)계획
- 도시재개발법
  - 도심재개발계획
  - 불량주택재개발계획
- 건축법
  - 도시설계
- 구획정리사업법
  - 구획정리사업계획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계획
- 주택건설촉진법

美、한국을 最一線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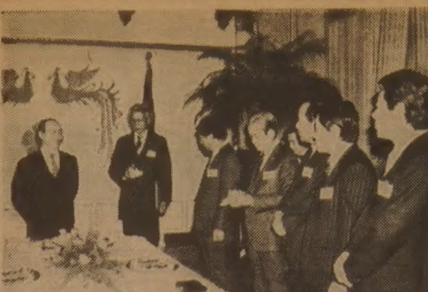
와인버거國防 나토·日과 集團防衛체제 구축

【워싱턴=李文熙특파원】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1일 상원 군사위 증언에서 미국의 방위전략은 방위와 전쟁억지를 원칙으로하고 있으나 억지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전략은 적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첫째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한국 일본 필리핀에서 집단방어세력으로 작용한 것이며 이런 집단방어세유지를위해 방어의 일선을 西유럽 한국 일본에 두고 전쟁발발시 이지역의 전력을 급속히 증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어 미국은 항상 방위에 중요한 지역에서 예기치않은 돌발사태가 발발할때 긴급히 대응하기위해 여러방위계획을 수행할수 있는 유동적 전력구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와인버거 국방장관의 발언은 최근 美비밀국방지침이 한국등에 대한 방어전략을 전환한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와인버거장관은 그밖에도 미국은 核전쟁의 초기단계를 훨씬 지나서까지 이를 지휘할 전략사령부와 통제시설의 존속을 보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공중지휘용 항공기들이 核戰의 환경속에서 더이상 효과적인 운용을 할수 없을 경우에 대비, 이들을 대체할 「이동 지휘센터」(MCCS)를 개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全斗煥 대통령이 反共연맹간부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自主的統一 역량 培養

全대통령、平統자문委員들에 만찬

全斗煥대통령은 2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청와대에서 平統자문회의의 金貞烈수석부의장등 在京및 중진자문위원 1백67명에게 만찬을 베풀고 이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조국의창조는 먼미래의 꿈이 아닌 우리의 당면한 현실적 과제이며, 또한 우리의 시대적 召命인 통일조국의 성취로 이어져 우리민족 전체의 항구적인 자유와 평화, 번영을확보하려는 民族史的의미를 지니고있다』고 전제하고『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와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등 國政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균형있게 추진해나가는한편 우리민족 至上의과업인 통일聖業완수의 신념과 결의를 더욱 고취하고자주적통일역량을 배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쏟아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孫在植통일원장관겸 平統사무총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자문위원 여러분은 그날에 대비해 각종 硏修와 회의를 통해 통일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反共聯임원등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2일 하오 청와대에서 한국反共연맹의 徐鐘喆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市道지부장24명을 접견하고 다과를 함께들며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지금 우리나라형편은 北韓공산주의자들과 긴장속에 대치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國力을 키워나가기위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하는 매우힘겨운 특수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하고『反共연맹조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도 모든 국민들에게 反共사상을 깊이 심어주는 적극적인 활동을전개해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데 노력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도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李振羲문공장관이 배석했다.

두大使 信任狀제정

全斗煥대통령은 2일상오 청와대에서 용·윙스트란트 駐韓스웨덴대사와 베르나르·프레몽駐韓스위스대사로부터 각각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어 자베드·마수드駐韓파키스탄총영사로부터 신임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이 배석했다.

首都圈 땅投機에 쐐기

合同조사반、所有主이동 추적나서

부동산투기 조짐이 다시일고있는 지역에 대해 2일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1일하오 관련부처의 당면 대책회의를 소집, 경기 果川·城南·板橋동 서울근교와 大田, 경기 安城및 淸州지역에 합동조사반을 투입, 투기여부를 가려내기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내무부·건설부·서울시·국세청관계자들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은 2일부터 현지에나가 등기부상의 소유주이동상황을면밀히 조사하고 현지복덕방과 주민들을통해 탐문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조사결과 투기행위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투기가 심한 지역은 투기억제지역으로 고시하는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防産品 3國수출 논의

6일 韓美外相회담

南北韓의 交叉승인도

韓·美양국은 오는6일來韓하는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을 맞아 외상회담을 갖고▲최근의 東北亞정세변화와 관련한 韓·美안보협력 강화방안▲防産品의 제3國수출과 FMS(해외군사판매차관) 등 對韓방위지원문제▲太平洋정상회담▲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방안▲양국의 經協및 통상증진방안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2일『슐츠장관의 訪韓은 미국의 對韓防衛公約을 거듭 다짐하는것으로 이번 양국외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 防産品의 제3國수출문제가 가장중요한 議題가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東北亞정세의 변화와 관련, 미국의 對韓FMS供與分이 금년에 1억6천만달러線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상환해야할 元利金은 이보다 많은 2억달러선인점을 지적, 미국측에 FMS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정착문제와 관련, 南北韓交叉승인문제도 거론될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슐츠장관은 訪韓에 앞서 北京에서 中共지도자들과 이문제를 협의, 中共측의 반응을 우리정부에 전달할것으로 보인다.

국민 오늘全黨大會

金鍾哲 再選키로

국민당은 3일상오10시 서울世宗문화회관별관에서 제2차 全黨大會를 열고 새총재를 선출한다.

대의원8백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지난번 당무회의가 총재單一후보로 提請한 金鍾哲현총재를 다시선출하고 전당대회의장단과 중앙위 의장단을 뽑을 예정이다.

전당대회는 또 국민에게보내는 메시지를통해 국민당의 새로운 행동지표를 밝힐 예정이다.

봄의 문턱 활짝핀 童心

◇『야, 얼음이 풀렸네。하나 둘 셋…』동네개구장이들이 기지개를켜고 징검다리를 깡충깡충 뛰어넘는다。아직 나무가지는 앙상하지만 입춘이 다가선 수면위엔 보드라운 봄의 입김이 잔잔히 퍼진다。【2일낮 경기廣州郡草月面에서 權周勳기자찍음】

社會漫評

유사시 에는…

地平線

스텔드 연구가 세계적으로 열을 뿜고있다. 훔친다, 몰래 한다는 뜻을가진 Steal에서 나온 스텔드(Stealth)는 보이지않는 미사일, 보이지않는 폭격기를 말하기도 한다. ▼특수한 페인트를 칠해서 敵의 레이다波에 反射되지않도록 만든 미사일이나 폭격기 개발은 核時代의 尖端技術이다. 한데 이최신電子技術이 벌써외국에서는 高層빌딩이나 긴다리의 電波受信障害防止를위해 이용되고 있으니 놀랄만하다. 알고보면 敵의大量殺戮을위해 만든 原子彈의원리가 原子發電으로 전용된지도오래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새 그 혜택을 받고있다. 그뿐아니라 국민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않는것처럼 보이는 국방비지출 또한 그 58%가 실은 국민경제로 환원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관리연구소 李京憲박사가 밝힌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32%를 차지하는 국방비 3조3천3백억원 가운데 1조9천3백억원이 국민소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人件費는 民間經濟에 購買力으로서 需要를 創出하고, 교육훈련비는 軍技術교육 훈련을통해 기술인력양성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通信、醫務、輸送、工兵、電子、航海、航空、兵器과정이 民間部門에 通用度가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에 많이 진출한 重機整備分野만해도 軍기술교육 이수자 1천9백38명은 민간인 기술자 적응폭자 1천9백23명 보다 많고, 航空분야기술인력은 거의가 軍출신인것도 누구나아는 일이다. 또 국방과학기술이 민간산업에 38%나 기여하고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道路、港灣、飛行場 건설에 군병력이 직접동원된때도 적지는 않다. 가까운예로 京釜高速道路를 건설할때 초기엔 군시설과 인력의 도움이 없었으면 준공이 제대로안되었을것이 사실이겠다. 방위산업의 생산파급효과도 60%를 넘는다고 한다. ▼그러고보면 국방과 국민경제는 밀접한관계에 있고 한몸인것을 알수있다. 국민경제의 부흥없이 국방이 튼튼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방없이 국민경제가 있을수도 없다. 옛날에는 屯田兵이 있어 농사를 지으면서 국방을 맡았고 山林보호를 하기위한 禁松軍도 있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기에 軍民合力이 흥륭한터인데 우리국방비의 상당부분마저 다시 국내경제에 도움을 주고있다는 이번 조사연구는 듣기에도 흐뭇하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알찬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읍니다.

대한항공은 주23회의 편리한 스케줄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한국을 직결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11편, 뉴욕에서 주4편, 호놀루루에서 주8편씩 서울로 직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뿐입니다.

모국을 방문하실 때는 어느 항공사보다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11	월·수·토	13:00	화·목·일	19:20	NONSTOP
KE015	화·목·금·일	22:00	목·토·일·화	06:20	앵커리지
KE001	화·목·토·일	08:40	수·금·일·월	20:40	호노루루·東京

뉴욕➡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07	화·목·금·일	23:00	목·토·일·화	06:50	앵커리지

호노루루➡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50	월·수·금·일	00:40	화·목·토·월	06:30	NONSTOP
KE001	화·목·토·일	13:40	수·금·일·월	20:40	東京

※ 모든 시간은 현지시간 임
※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사 535－6004
● 제일여행사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美盟邦 군사력 增強해야"
슐츠美國務 "「零의선택」 極東도 대상"

【東京=聯】일본을 방문중인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은 1일 미국과 그 맹방들은 방위적 정신에 입각,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극동을 순방중인 슐츠장관은 일본방문 3일째인 이날 도오꾜시내 일본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그 맹방들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을것이며 방위력증강과 적의 침략에대한 억지력을 우리들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슐츠장관은 『이같은 미국의 방위목표가 소련과 북한을 대상으로 삼고있는것이지만 캄보디아 및 세계 전역의 분쟁지역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또 31일 나까소네일본수상과가진 회담에서 미국은 현재 유럽을겨냥해 배치돼 있는 소련SS20중거리미사일이 아시아에 이전배치되는것을 반대한다고말했다.
그는 소련에 대한 레이건행정부의 「제로·옵션」(零의 선택) 제안은 지구상의모든곳으로 부터의 지상발사중거리미사일의 전면 제거를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 극동지역을 겨냥한 1백基의 소련 SS20미사일도 마땅히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슐츠장관은 특히 일본의방위문제에 언급, 『일본이영공과 주변해역을 방위하는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日本의 이분야에 대한 방위노력이 아직부족하다는것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美정부가 나까소네수상이 밝힌 日本의방위력증강노력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를린 장벽앞에선 부시美부통령 헬무트·콜西獨수상(右)이 1일 西베를린을 방문중인 조지·부시 美부통령(中)을 포츠담광장으로 안내, 베를린장벽을 가리켜보이고 있다。왼쪽은 리카르트·폰·바이제커 西베를린시장。【베를린 2日UPI電送=聯合】

제네바軍縮회의의 開幕
化學무기개발·核실험금지 논의

【제네바(瑞)·蔡=聯】지구상에서 중거리핵미사일의 제거하자는 레이건美대통령의 제안이 발표된데 이어 40개국 제네바 군축회의와 美·蘇중거리핵미사일(INF)협상이 1일제네바에서 각각열렸다.
유엔의 후원아래 지난62년 첫번째 회의개막이래 22년간 끌어온 제네바 軍縮회의는 이번회기를통해 지난6년간 논의해온 화학무기개발및 비축금지협정체결문제를주요의제로 다루는한편 核실험금지문제도아울러 논의할예정이다.
美·蘇·英·佛·中共등 5개 핵강대국을 포함, 총 40개국이 참가하는 이회의는 지난 68년 1백14개국이 조인한가운데 核擴散금지조약(70년발효)을 성립시켜 가장큰업적을 이루었다.
유럽을 순방중인 조지·부시 美부통령은 4일 제네바 軍縮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예정이다.

고장蘇위성 원자로 7~10일사이 추락

【워싱턴=聯】아직까지 궤도에 남아있는 蘇聯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의 원자로부분은 1주일쯤 있으면 대기권에 재돌입, 불타버릴것이라고 美국방성관리들이 1일 말했다.
이관리들은 코스모스호의 핵심부분의 대기권재돌입시기는 오는7~10일사이가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OPEC서 油價등 合意안되면 페灣6國、4달러 내려

【매나마=聯】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페르시아灣연안의 石油輸出國機構(OPEC) 산유국들은 OPEC가 유가문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일부터 1주일사이에 油價를 배럴당 4달러씩 인하할것이라고 관영 쿠웨이트통신은 보도했다.
쿠웨이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유가를 배럴당 30달러로 인하하는 것은 사우디·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UAE)및 카타르등 OPEC회원국과 페르시아灣協力協議會(GCC)의 동맹국인 오만및 바레인등 6개국의 공동입장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입장은 이미 다른 OPEC회원국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슐츠、中共으로

【東京UPI·AP=聯】12일간의 일정으로 아시아를 순방중인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은 2일 4일간의 일본방문을 끝내고 東京근교의 하네다(羽田)공항을 출발, 두번째방문국인 중공으로 떠났다.
슐츠장관은 닷새동안 중공을방문하면서 지난해4월 미국의 대대만군사부품판매결정으로 악화돼온 美·中共관계를 안정시키기위해 노력할것으로 보인다.
슐츠장관은 중공방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며 귀로에 홍콩에들러 동아시아지역 美해외공관장회의를 주재한다.

趙紫陽 美초청할듯

【홍콩=聯】미국은 2일부터 시작하는 조지·슐츠 국무장관을 통해 中共수상 趙紫陽이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할것으로 北京외교소식통들이 보고있다고 홍콩의 親中共석간 新晩報가 1일 보도했다.

蘇、頂上회담제의거부
안드로포프 레이건발언 비난

【모스크바UPI·AP=聯】유리·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은 1일 유럽배치중거리핵미사일을 제거하기위한 레이건대통령의 美·蘇정상회담제의를 『수락할수 없는것』이라고 일축했다.
안드로포프서기장은 이날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와의 회견을 통해 레이건대통령의 제의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으며 종전의「제로·옵션」(零의 선택)만 되풀이한것이기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안드로포프서기장은 레이건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통해 레이건대통령과의 頂上회담이 두 초강대국간에 『불붙고있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유용할수 있을것이나 유럽핵문제에 관해 소련이 『결코 수락할수 없는결정』에 동의할것을 조건으로하는 頂上회담은 이 문제전반에대한 美지도부의 진지한 태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또 레이건대통령이 核무기감축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취하지않고 『선전놀이』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소련은 이같은 『정치적또는선전적』 목적을 위한 頂上회담은 원치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수락할수있는 해결점을 발견할 목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이것은 美·蘇양국과 유럽및 전세계를위해 유용한것』이라고강조했다.

北韓외교관들 麻藥·무기密賣
아르헨紙、10여년간 국제적非行 폭로
폭력행사등 20여國서 추방

【뉴욕=聯】아르헨티나의유력신문 라·프렌사紙는 지난31일 북한외교관들의 마약과 무기밀매에 관한 폭로기사를 실었다.
1일 뉴욕에서 입수된 이신문은 10면에 「마약과 무기를 밀매하는 북한외교관들」이라는 제목의 8단기사에서 지난 10여년간에걸친 북한의 국제적비행을 낱낱이 들춰냈다.
환·페르세이기자가 쓴기사 내용을 요약하면다음과같다.
『마약·주류·무기등의 밀매와 절충하는 외교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혁명을 선동하는 외교관, 여러나라의 테러분자들을 모아 훈련소에 보내는 외교관, 국제회의석상에서 다른나라 대표들에게 물컵을 던지는 외교관, 이런 외교관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정권이 바로 극동에 있는 북한정권이다.
북한외교관들은 육체적공격수법도 쓰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벨기에人들을 특히 미워하는 그들은 지난 71년에는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벨기에 대사를 납치하려들기까지 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82년12월 파나마에서 발생했는데 북한외교관들이 당시 마약거래와 정부전복활동에 관련되어 北韓외교사절임자가 추방됐다. 북한대사가 격렬한 논쟁끝에 벨기에외교관의 머리위에 물컵에 담긴 물을 끼얹은 사건은 아마도 외교사상 전례가 없는일일 것이다.
북한외교관들은 [illegible] 10여년사이 20여개국가들로부터 추방됐다.』

社說

東北亞에 緊張의 波高
―美國防省 두報告가 警告하는것

지난31일 발표된 연례국방보고서를 통해 레이건행정부가 北韓의 好戰性을 색다른 각도에서 강조한것은 우리의 남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소련軍이 西南아시아[illegible] 北韓이 이를 이용, 韓國을 공격 할지도 모른다고 84회계연도 연례국방보고에서 지적하였다.
지난달에 새어나온 美84-88회계연도 방위지침에 따르면 소련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재래식병력으로 페르시아만의 油田을 확보하려고하면 미국은 北韓, 베트남및 소련의 南部해안에 반격을 加한다는 전략을 갖고있다고 했다.
이 美84-88회계연도 방위지침은 페르시아만에의 소련군공격을 사전에 저지하려는데 比重을두는것이라고 한다면, 84연례국방보고서는 페르시아만사태에 대비한 美軍의 방위력이 엷어지는 틈을 타서 南侵을 감행할수 있는 北韓의 모험주의적 好戰性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도 美國防省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北韓의 南侵가능성을 경고했으나 南北韓의 군사력對比라든가 韓半島를 둘러싼 지역주변정세에 비추어서 北韓의 군사모험주의를 문제삼아 왔다.
東北亞지역이 아닌 西南아시아(페르시아만)사태와 관련해서 北韓이 南侵을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韓半島문제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방성연례보고서 보다도 더구체적인 군사정세를 다루는 美合參 군사태세보고서는 北韓해군이 韓國의 주요항구에 기뢰를 부설, 港灣을 봉쇄하고 해상통로를 차단하는 외에 韓國에 대해 수륙양면공격을 감행할수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韓의 조선소는 지난 80년이후 미사일공격함과 신형수륙양용주정 건조에 박차를 加하고 있다고 이 合參군사태세보고서는 공표했다.
北韓이 GNP(국민총생산)의 약 30%를 군사비에 투입, 군사력증강에 광분해온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체로 70년대 초중반에 집중노력해온것으로 평가되었는데, 80년부터 새로이 해군력을 急伸長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계를 요하는 대목이다.
그 군사태세보고서는 또한 韓國은 전쟁비축물자의 부족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이의 보강이 시급하며, 이러한 韓半島에서의 군사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韓國해군력의 강화와 有事時 美軍의 병참및 海空軍力지원이 韓國방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소련및 北韓의 군사력증강에 대처하기위해 東海에 美항모기동타격대를 배치한다고 국방보고서가 밝힌것은 적절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美의회에 제출된 국방성의 두보고서는 아시아지역에서 급격히 증강된 소련군사력을 각별히 경계하고 北韓의 80년대후 군사력증강에 주의를 환기시킨것이 예년과는 다른 특색이라 할수 있겠다.
極東4개국을 순방중인 슐츠美국무장관도 『아시아서 미국의 방위목표가 소련과 北韓을 대상으로 삼고있다』고 직접 北韓을 지칭한것은 이같은北韓의 好戰的군비증강을 두고 경계한 말일 것이다.
소련은 이미 약1백기의SS20신예중거리 核탄두 미사일을 아시아지역에 배치하고, 최근의 韓·美·日 안보체제와 관련해서 유럽지역에 배치했던 SS20미사일을 아시아로 옮길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美蘇대결에 따른 긴장의 파도는 유럽서 아시아로 옮아지고 있는것같다. 北韓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對南武力赤化의 망상이 韓半島뿐아니라 세계大戰을 유발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全斗煥대통령이 제의한대로 對話를 통한 해결에로 방향을 전환할것을 재삼 촉구해 둔다.

새 文化藝術이 갈길
―傳統기반위서 世界化 지향해야

새해 들면서 정부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다양하고 의욕적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공부에서 예술의 전당을 신축하는것을 비롯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앙청사로 이전하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악당의 신축내지는 전당계획에 곁들여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발족과 내무부에 의한 지방문화육성방안의 추진등으로 자못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지난 20여년간 고도경제성장의 성취를 위한 집중된 사회적노력의 축적으로 나라의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이에 뒤따른 일반의 문화적욕구도 팽창한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문화예술의 풍토는 정치·경제·사회등 여러분야의 성장과 진전에 비겨 아직도 거기에 상응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채 파행과 불균형의 격차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것이 실정이다.
한사회가 선진의 대열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가 균형잡힌 조화를 얻는것이 가장 선행해야하는 기본적인 조건임을 생각할때, 정부가 80년대를 겨냥하여 정신적인 가치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방도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문화예술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그사이 우리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걸쳐 한때 거듭된 혼란과 충격으로 기왕의 가치체계는 무너지고 새시대상황에 대응한 새로운 가치관과 그체계의 재정립 없이 방황하다시피 해왔다.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 해도 겨레가 공동의 지향으로 삼을수 있고 총화의 구심점이 될수있는 문화예술에 바탕을 둔 정신적 가치를 정립하지못했을때 안으로 부터의 자괴작용으로 사상의 누각이 되었던 선례는 역사속에서 무수히 볼수있다.
이와같은 역사의 전철을 거듭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다같이 명심해야할일은 문화와 예술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활달한 사상과 거침없는 창작활동의 소산일지언정 결코 타율에 의존해서 이룩되는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관의 주도보다는 폭넓은 민간의 역량과 참여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지 않을수 없다.
이에 있어서 문화예술에 참여한 인사들은 자율에 수반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 으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갖추어야할것은 말할나위가 없다. 물질적인 보상에 집착하거나 편의주의에 편승하거나 그에 뒤따른 창조를 위해 끊임없는 전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일관해야 할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부관계자나 문화예술계의 인사들이 다같이 명심하고 일반이 유의해야할 문제점은 문화예술의 혜택이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계층과 계층간에 빚게한 편중및 격차를 없애는 일이다.
현재 문화예술의 중앙집중현상은 해가갈수록 심화되고있어서 문화예술행사의 75%와 문화시설의 절반이상, 그리고 출판물의 94%가 서울에 치우친 실정인만큼 그시정은 가장 우선해야할 급선무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문화예술의 특질과 보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으며 고루한 우월감이나 자만에서 벗어나 크게 세계로 눈을 돌려 모든 세계인들이 눈여겨 보고 감격할수 있는 문화예술의 성과와 그에서 우러나는 행동원칙을 제가끔 몸에 지니게 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을 세계화 한다는것은 정부나 문화예술인및 일반이 다함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특질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시대정신과 능력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재창조했을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日、새 國籍法案 마련
父系를 父·母兩系혈통으로 바꿔

【東京=聯】일본법무성 법제심의회는 1일 父系혈통우선주의로 돼 있는현행일본국적법을 고쳐부모양계혈통주의로 하는 새 국적법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이날 밝혀진 새 국적법개정 시안은 ①현재의 父系혈통우선주의에 의한 국적법을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꾼다 ②[illegible] ③배우자의 歸化조건은 남녀평등하게 한다는 것등으로 되어있다.
양계혈통주의의 채택으로 해마다 약1만5천명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2중국적자에 대해서는 성년이됐을때 국적 선택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둔다.

"先進조국은 의식先進化에"
李文公、反共聯盟정기총회서강조

李振羲문공장관은 2일 제19차 한국反共聯盟 정기총회에 참석, 치사에서 『先進조국을 달성하는 원동력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투철한 정신무장, 즉 확고한 국가관, 민족관의 정립과 국민의식의 선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또 『확고한 국가관과 민족관에 입각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民族史的 정통성에입각한 민족주체성을 확립할때 선진조국의 실현을위한 국민에너지의 집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徐鍾喆이사장 留任 反共聯盟 정기총회

한국반공연맹은 2일상오 서울시내 자유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임기가만료되는 徐鍾喆이사장을 유임시키고 주요사업계획을확정했다.
또 이날총회에서는 반공유공자 沈明求씨(仁川市지부장)등 33명이 문공부장관으로부터 정부수여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人事異動

서울올림픽조직위 ▲기획실장 張炳朝 ▲경기국장 朴漬旭 ▲시설국장 李相[illegible] ▲기술국장 裵文煥 ▲국제국장 姜永吉 ▲자료국장 [illegible] ▲의전국장 李再弘 ▲홍보국장 [illegible] ▲사업2국장 申同澈 ▲선수촌본부숙식국장 崔[illegible] ▲선수촌본부운영국장 洪[illegible]

本社來訪

▲尹昌老大領(陸本報道室長) 신임 ▲李柱石大領(前陸本報道室長) 離任 ▲金鍾珞씨(대한야구협회 명예회장) 인사차

記者의 눈 — 不安한 스타트

농수산부에 비상이 걸렸다. 물가에 대해 책임을 지면 사표를 각오를 하라는 엄명이 떨어져 전직원이 좌불안석이다. 장차관까지 『면목없다』면서 송구스러워 한다는 얘기다.
1월중 식료품가격이 1·4%나 오르고 이 바람에 전체 소비자물가가 0·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으니까 농수산부가 안절부절하게 된것도 무리는 아닌것같다. 올해 물가목표가 3~4%인데 한달에 0·8%가 올라 목표의 4분의 1가량을 잠식해 버렸으니 올해 물가시책은 출발이 순조롭다고 할수 없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법이다.
농수산부가 물가에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마음을 갖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일이라고할 수있다. 그러나 그 송구스러움은 [illegible]
비상을 걸어야할곳은 경제기획원이다. 주택을 중심으로한 내수경기의 회복을 꾀하는 수단이 지나쳐서 비상한 수단을 동원하고 무리를하게된다면 [illegible]
농수산물가격은 [illegible] 성이란것이 있어서 내리기가 어렵지만 농수산물가격은 수요에 민감하고 독과점이 없기때문에 탄력적이다. 계절적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오르고 내리는것이다.
농수산부가 0·8%때문에 놀라서 비상을 걸고 있는데 기획원은 전국적규모의 토지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 느긋한 태도다. 행차 뒤 나팔식으로 뒤늦게 합동조사반을 투입해서 현지조사를 한다지만 그렇게 굼뜬 동작으로는 기민하게 움직이는 투기를 잡을수없다. 농수산부처럼 비상을 걸고 『사표쓸 각오』로 강경하게 나서도 잡힐지 말지한 투기다. 일단 번져버리면 잡기 어려운 것이다. 투기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死後藥方文이다. 투기가 물가의 天敵이라는 것 쯤은 기획원 당국자들도 알수 있는 일이다. 반자리수 물가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원이 좀더 분발해야겠다.
【朴武經濟部기자】

政局往來

◆국민들 「先進조국」自信에차있어
全斗煥대통령은 2일 저녁 平統자문회의의 在京위원및 중진자문위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지금 우리국민들 사이에는선진조국의창조를위한 기대와 熱氣、自信이 충만한 가운데 새역사를 이룩하려는 약동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자문위원들이 선진조국을 향한 隊列의 先頭에 나서줄것을 당부.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反共연맹간부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도 『금년 한해 국민적 화합속에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굳건히 다져 놓으면 내년부터는 이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착실한 전진을 해나갈수 있으며, 선진조국의 창조를 반드시 이룩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지난해의 특히 알찬성장은 反共연맹조직원들이 국민단합의 求心體가돼 국민들을 이끌어간데 크게 힘입었다고 反共연맹조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改編大會서 한번도 拍手안나와
民正黨의 李穀濬代表위원은 2일 상·하오에 걸쳐 沃川·永同(위원장 朴有載의원), 大德·錦山지구당(千永星의원) 개편대회에 참석, 격려사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일은 苦難의길』이라며 『비록 내나이 70이지만 民主정의의 고달픈길을 서둘러 가자』고 강조.
한편 이날 열린 慶南 金海、梁山지구당(위원장 李鍾雨의원) 개편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선된 李의원은 15분간 인사말과 격려 [illegible] 연설내용에 「대중사를 [illegible]」 했는데도 박수가 한번도 나오지 않아 異彩.
이날 개편대회를 마치고 密陽으로 향하는 격려반 차량행렬의 선두에 경찰백차가 요청도않은 에스코트를 하기도.【金海=李以春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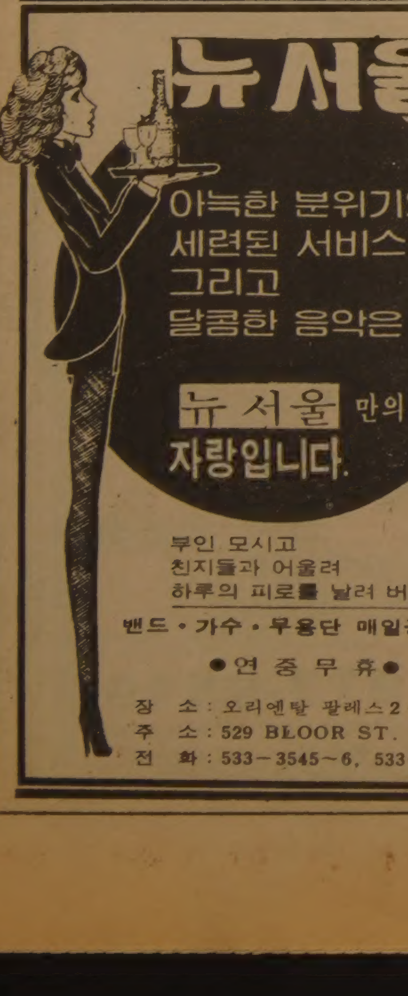
◆留聲器시대의 흘러간노래만 불러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2일 상·하오에 걸쳐 釜山中·東·影島(위원장 王相殷의원), 東萊지구당(金鎭載의원) 개편대회에 참석, 『야당은 20년전 留聲器시대의 흘러간 노래만 부르고있다』며 한동안 잠잠했던 對野砲擊을 再開.
그는 이날 격려사에서 『외국유명한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지구당과 의원회관사무실에 걸어놓고 스스로 위대한척하는 얼빠진 정치인이 눈에 띈다』며 『이같이 事大主義에 물든 정치인들은 새시대 정치무대에 설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질타.

野圈 全黨대회로 부산… 民韓黨은 준비 서둘고 국민당은 最終리허설

李총무는 또 『과거정권때 韓日회담반대를 선동했던 의원연맹은 일본과 癒着해온 장본인들』이라고 규정하고 『오늘날 새 시대국회에는 자주의식이 결여된채 외국사람에게 굽실거리는의원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정치는 사회갈등과 이해를 조화시키는 종합예술』이라고 定義한 李총무는 『이것을 할줄 모르는 정당과 정치인은 政界에서 떠나야한다』고 말한뒤 『정당은 꿈과 미래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것으로 경쟁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聲援을 큰부담으로 알아야
2일의 民韓黨당무회의는 오는 9일 全黨대회에 [illegible] 改編大會 [illegible] 위원장을 認准 [illegible] 拍車。
이날회의에서는 지난연말부터 40여일간에 걸친 지구당개편대회에 대한 總評도있었는데 柳致松총재는 『民韓黨의 입장을 알리고 民韓黨의 위치를 가다듬는 좋은 기회였다』고 만족스런 自評을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40여 지구당을 돌면서 예상외로 뜨거운 입선당원들과 국민들의 성원을 직접 확인할수 있었다』면서 『뜨거운 성원을 무거운 부담으로 알고 모두가 가일층의 노력을 하자』고 당부。
한편 이날 확정된 대의원수를 보면▲중앙상무위원=1백45명▲지구당위원장추천=3백4명(76개지구당)▲중앙당추천=48명▲市道支部長추천=20명등 모두 5백17명인데 이는 黨憲에규정된 6백명이내에서 事故지구당 16개의 80명, 중앙상무위원사망1명、道支部長이 有故인 忠南道지부추천2명등 83명을 제외한것。

◆국민당 徹夜로전당대회준비點檢
3일의 全黨大會를 앞두고 그동안 사무국요원들이 철야작업을해온 국민당은 대회 하루를 앞둔 2일하오 늦게까지 申喆均사무총장을 司令塔으로 마지막 준비에 부산。
「뭉치자」「必勝85」를 전당대회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국민당은 이날하오 사무국요원들을 [illegibl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しょうこそば
日本式 우동집 Phone: 465-4482
월·화 : 휴업(CLOSED)
수·목 : 12시-2시30분 6시-9시
금 : 12시-2시30분 6시-10시
토 : 12시-10시
일 : 5시-9시
1391 Danforth Ave., Tor.
(Greenwood와 Coxwell 사이)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596-7311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토론토시

토론토시 부동산 납세자에 대한 공고

현재까지는 당신이 1983년도 중간 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했으면, 367-7115로 전화하거나 Tax Collector, City Hall, Toronto M5H 2N2로 편지하십시요.
또는 가능한 빨리 시청 1층에 세금안내 카운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십시요.
당신이 세금고지서를 못받았다하더라도, 당신의 부동산세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1983년세 처음 4번 분할불입금 날자는 2월15일, 3월15일, 4월15일, 5월16일까지 입니다.
이 분할불입금은 작년도 주택율 반에 의거해서 산출됐읍니다.
6월에 당신은 다시 4번 분할불입하게 되는 청구서를 받게 되는바, 이것은 1983년 부동산세의 나머지금액인 것입니다.

G. H. Clarke City Treasurer 시 재무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어린이 轢傷 골목길에 버려

30代운전사 拘束

【釜山】부산동부경찰서는 2일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친 뒤 자기차에 태워 다른곳에 버린 남영택시소속 부산1하7172호 택시운전사 손영완씨(22·南原市鄕校洞)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5일하오6시께 시내中區寶水洞3가77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박광열씨(35·中區寶水洞1가6)의 장남 태군(7)을 치어 12주의 중상을 입힌뒤 박군을 자기차에 태워 西區芙蓉洞경남도청 뒷길에 버린혐의다.

쇠고기다시다 廣告 保社部서 是正권고

보사부는 2일 조미료제조업체인 第一제당의 신개발품 쇠고기다시다 광고문안중「천연의 맛이 듬뿍」이란 표현이 소비자의 이해를 어렵게 할수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보사부는 이날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내용을 강조할수 없도록 한 식품위생법규정을들어 화학조미료가 아니라고해서「천연의맛이듬뿍」이라는 표현을 쓸수는 없다고 유권해석을내린 것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해석은 다시다 광고내용의 식품위생법저촉여부를 밝혀달라는 서울味元측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노름판 싸움 腦出血 숨져

【永川】永川경찰서는 2일 화투로 노름을 하다가 시비끝에 같은 동네사람을 때려 숨지게한 김호영씨(26·永川市完山洞988의28)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韓】

非行증가 크게 염려

學生·一般대상조사 머리·校服자율화 후

"단계적 실시 바람직" 50%

"책임意識 부족하다" 60%차지

학생들과 어른들 과반수가 중·고교의 두발·교복자율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책임의식을 갖지못한상태에서 온갖 규제와 속박이 한꺼번에 풀려 음주·흡연·성관계등 온갖 청소년비행이 급격히 늘어날것으로 염려하고 있는것이다.

이같은 청소년 병폐를 막기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거나 청소년들의 위험한호기심을 해소할수있는 건전한 레저시설의 확충등이 시급하다는 대안이 제시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사무총장 柳九恒)가 실시한 자율화조치에따른「청소년비행방지대책에관한 조사연구」에서 밝혀진것이다.

이육성회는 자율화조치에 따른 자율화의식, 비행과정 등을 서울시내 남녀2개고교 학생8백59명(남 3백60명 여4백99명)과 성인5백88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이는 자율화이후의 첫의식조사여서 주목된다.

학생과 성인에게 같은 설문지를 사용했는데 이 조사결과 학생들은 자율화의 정도에 관해 43·5%가『완전보장』, 49·8%가『학교지역특성에 따라 규제가필요하다』또는『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율화조치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해 학생응답자가운데 60·7%가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응답, 과반수이상이 스스로 자율화를 책임질 자신이없는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율화에 따른 성인들의 인식도는 응답자의 60%이상이 긍정적으로 대답, 분위기는 돼있지만 자율화이전과 비교할때 부모들의 관심도가 그대로이거나 낮아졌다는 반응이 64·5%로 자율화에 따른 부모들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자율화이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심각도에 대해 청소년자신들조차 크게 우려하고 있는 현상.

흡연·가출·성병감염·성관계·미혼모문제등 9개 문제행동 가운데 7개항목에서 50%이상의 응답자가『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항목별 우려도는 흡연 64·9%, 가출52·7%, 음성서클가입63·3%, 혼전성관계 59·1%, 성병감염 52·2%, 미혼모 51·7%등이었다.

이밖에 음주에서 44·8%, 무단외박 46%, 가재지출에서는 35·7%가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비행의 원인에 대해 청소년들은 79·5%가 부모의 무관심과 가정교육부족, 46·2%가『건전오락시설부족』등으로 대답해 자율화이후 특히 건전오락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응답했다.

건전오락시설확충문제는 자율화이후 전체의 55·4%가『새로운경험을 얻고 싶다』고 대답한 사실과 함께 앞으로의 청소년선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자율화조치의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들은 두발완전자율화 (22·3%), 이성교제자율화 (17·2%), 가방자율화 (17·2%)순으로 응답 청소년들이 바라는 자율화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인들이본 청소년들의 자율의식및 태도도 청소년들이 본 것과 비슷한데 자율화에 따른 책임의식에대해 63·4%가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응답했다.

자율화이후 청소년비행의 추세에 대해 성인들은 79·4%가『늘어날 것』으로 전망 청소년선도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응답했다.

또한 9개항목의 청소년비행에대한조사에서 성인들은 청소년들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흡연과 혼전성관계에는 60%이상이『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그밖에 음주·가출·성병감염등 문제에도 50%이상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朴珍羽기자】

<청소년문제 행동의 심각도>

행동 \ 문항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문제아니다	무응답	계
흡연	64·3	24·4	10·4	0·9	100·0
음주	44·8	38·4	15·3	1·5	100·0
가출	52·7	32·8	13·0	1·4	99·9
무단외박	46·0	32·1	20·5	1·4	100·0
가재지출	35·7	37·3	22·8	4·2	100·0
음성서클	63·3	24·2	10·8	1·6	100·0
혼전성관계	59·1	22·2	16·9	1·7	99·9
성병감염	52·2	20·0	25·6	2·2	100·0
미혼모	51·7	21·9	23·4	3·0	100·0

◇새로나온 4·5·6학년교과서. 학습분량이 축소 조정된 이 교과서는 새학기부터 사용된다.

國校 4·5·6학년교과서 바꿔

分量줄이고 內容쉽게

국민학교4·5·6학년용 교과서가 새학기부터 모두 바뀐다.

새교과서는 종전보다 학습분량을 줄이고 내용도 쉽게 만들어졌으며 학생이 교과서만으로 자습할수있도록 단원마다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처음으로 전교사에게 교과서와 동시에 지도서를 따로만들어 공급, 교사가 어려움없이 수업을 운영할수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새로만들어진 교과서는 종래의 한학년36주분량이 32주분량으로 축소조정 된것이라고 밝혔다.

음악 미술과목의 교과서는 종전의 국판크기에서 4·6배판으로 규격을 크게 만들었고 모든교과서의 지질은 고급화했으며 흑백삽화를 원색으로 바꿨다.

이번 교과서 개편으로 지난해 1·2·3학년 교과서개편과함께 국민학교 교과서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이교과서는 앞으로 5~10년동안 사용케된다.

개편된 교과서중 4학년1학기 국어교과서에는 종전3학년1학기 국어교과서에 들어있다가 빠진「류관순」에 관한 시가 수록됐다.

교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어=단원마다 말하기 글씨쓰기 글짓기의 문제를 수록. 글짓기를 신설, 작문교육을 강화했다.

◇산수=단원을 세분화하고 각단원마다 준비 본내용 요약정리 연습 복습의 단계로 나눠 구성.

◇자연=도입 정리단계 신설 에너지 자원 환경 오염등의 내용 강화.

◇음악=종래의 일본교과서 형태서 벗어나 학습동기를 유발할수 있도록 개편. 감상악보를수록하고「도라지타령」등 한국민요 5곡이상씩 수록.

◇미술=한국 작가의 작품을 늘림.

◇체육=기본운동 기능을 신장할수있는 내용 수록.

◇실과=근검절약의 실천내용을 중시.

赤十字 水曜봉사 李順子여사 참석

대통령부인 李順子여사는 2일상오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있은 대한적십자사水曜봉사활동에 참석, 국무위원부인, 駐韓외교사절부인등 1백여명과함께 거즈접기등 의료품을 만들었다. (사진)

李여사는 이어 봉사활동이 끝난뒤 참가자들에게 다과를 베풀고 노고를 위로했다.

拉致소동 벌였던 미스서울 美서 強制송환, 拘束

애정행각끝에 납치소동을 벌였던 82년도 미스서울 李淳福양(29)이 1일 하오7시2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KAL편으로 강제송환됐다.

미국에서 강제출국당한 李양은 이날 金浦공항에 도착 즉시 서울지검공안부 李鍾燦검사에 의해 여권변조과정과 출국과정에대한 조사를 받은뒤 공문서변조및 동행사·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한 베이지색 바탕에 초록색줄무늬 상의와 갈색체크무늬 스커트를입고 金浦에온 李양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李양은 아직도 다리등에 담뱃불로 지져진 상처와 할퀸 자국등이 눈에 띄게남아있었는데 미국 FBI에서 조사를 받은뒤 몸에난 상처를 조사하기위해 미국 말라포군 검찰부 부속병원 존·우드박사로부터 정밀검사와 함께 상처부위에 대한 36장의 사진을찍었다고 李양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趙桂衡변호사가 밝혔다.

金得九선수 死亡보험금 10萬弗 KBC도착

故 金得九선수 유족들에게 지급될 WBA(세계권투협회) 사망보험금 10만달러가 수표로 2일 한국권투위원회(KBC)에 도착했다.

이보험금은 WBA가 선수및 주부심 감독관의 사망 또는부상에 대비, 美國컨티넨탈 캐주얼티 보험회사(시카고)와 계약한데따라 지급된것으로 WBA는 세계타이틀매치때마다 매번 8백달러씩을 보험료로 내왔다.

KBC는 金선수유족과의 약정에따라 보험금 10만달러를 빠른시일내에 金得九유족에 40%, 약혼녀 李英美측에 60%로 분배지급할계획이다.

굴따던 動力船전복 1명죽고 2명失踪

【華城】1일하오5시30분께 경기華城郡南陽面文湖里 선착장앞 1㎞해상에서 4·83t 동력선 평내호 (선장 洪순민·34)가 뒤집혀 安희씨(65·경기華城郡南陽面匙里)가 익사하고 함께 탔던 양옥순씨(여·40) 張순자씨(52·경기華城郡牛月面 안산부락) 등 2명이 실종됐다. 【韓】

東華 해수욕장 入場料 받기로

【東華】東華市는 올해부터 해수욕장을 직영화함에 따라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2일 확정발표된 입장료는 ▲어른2백원, 단체1백50원 ▲군인1백50원, 단체1백원 ▲학생1백50원, 단체1백원 ▲어린이1백원, 단체70원이다. 【韓】

새마을敎育가던 택시·트럭衝突 세面長 慘變

【安養】1일 하오7시께 경기始興郡果川面下里153앞 京水산업도로에서 서울7다9720호 8톤 덤프트럭 (운전사 高종남·34)이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서울4마1295호 포니택시(운전사 鄭영갑·29)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택시운전사 鄭씨와 승객 金기수(54·전남영암군金井면장) 朴수일(52·〃都浦면장) 金화준씨(49·〃新北면장) 등 4명이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를당한 3명의면장은 2일부터 5일까지 水原내무부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 읍면장교육에 입교하기위해 상경, 서울고속터미널에서 水原에있는 내무부연수원으로 가던길에 이같은 변을 당했다. 【韓】

釜山택시組合 社納金 내려

釜山市택시사업조합은 1일 노사대표위원협의회를 열고 LPG값인하에따라 이날부터 사납금을 2천5백원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기로했다.

또 지난해 월급제실시에관한 임금협정 체결이 늦어짐에따라 지급되지않았던 8·9·10월분 상여금은 올해 12월까지 지급토록하고 월급제실시이후 운전사들의 불평이 많던 15일만근제의경우 13일이상을 정상근무하면 만근으로 간주, 성과급과 상여금을 정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金義澤민권당총재 社會葬 결정

1일 작고한 民權黨 金義澤총재의 장례는 2일 사회장으로 거행키로 결정됐다.

5일 民權黨 黨葬으로 거행하려던 장례절차및 위원등은 추후결정된다.

全대통령、弔意전달

全斗煥대통령은 2일 상오 故金義澤民權黨총재의 빈소에 鄭順德청와대 정무제1수석비서관을 보내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大法院長비서 瀆職 判事2명 辭表수리

대법원은 1일 전대법원장비서관 독직사건과 관련, 江景지원장으로 전보된데 불복, 사표를 제출한 서울형사지법朴俊庸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江景지원장에 서울고법 梁信範판사를 오는 5일자로 승진발령했다.

대법원은 또 서울고법판사 李秉文城南지원 판사를 진발령하고 姜濱周 서울고법 판사를 재판연구관에 지명했으며 姜昌雄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서울고법판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金大中씨 사건관련 沈載權씨 석방

서울지검 공안부는 1일 金大中씨사건과 관련, 지난달 4일구속했던 전서울大生 沈載權씨(37·당시경제과 4년)를 구속 28일만에 석방했다.

沈씨는 계엄기간중이던 80년봄 학원사태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지명수배됐었는데 지난달4일 검찰에 자수, 구속됐었다.

검찰은 그동안 金大中씨사건과 관련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풀려난 점을 고려, 구속취소로 석방한것이라고 밝혔다.

病院설립미끼 詐欺…6명拘束

大檢 "건물都給·운영參與權준다" 4億臺

대검중앙수사부4과는 2일 의료법인 柳韓병원이사장 柳泰鍾씨(43·전과 2범·서울鍾路區母岳洞46의652), 이사 成洛健씨(38·전과 3범·서울江東區明逸洞삼익아파트 1-01동905호), 이사 朴昌燦씨(41·전직공무원), 朴昌潤씨(37·전과 4범), 金春起씨(46), 기획실장 權記雄씨(37)등 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보사부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뇌물로주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위해 수사를계속하고있다.

검찰에의하면 柳씨등은 지난81년12월21일 보사부로 부터 1개월이내에 부지확보및 자본금 7억3천만원 예치를 조건으로 의료법인 柳韓병원의 설립허가를 받아낸뒤 82년3월2일 서울 中區忠武路3街 大同건설회장 康亨天씨(71)에게『柳韓병원은 3백50병상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정부기관의 지원아래 부산에 건립되는데 이미 미국에서 건축및 운영자금으로 3천만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한일은행에 예치시켰고 부지도 확보했으니 70억원의 병원건축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속이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뒤 사례금으로 1억8천만원을 편취한혐의다.

이들은 또 82년6월3일 세계기독교선교협의회 (서울中區太平路2街) 사무총장 韓敏洙씨(43)가 공익법인 설립자금마련을위해 담보물을구하고있음을 알아낸뒤『柳韓병원에서 서울江西區 傍花洞일대의 대지 약13만평 (싯가3백억원) 상당을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았는데 그가운데 30억원상당의 토지를떼어주고 병원운영도 공동으로하자』면서 가짜담보서류와 차관문서등을 제시, 병원공동운영에관한 약정을 체결한뒤 운영비로 1억1천만원을 편취한혐의도 받고있다.

이들은 이밖에도 82년4월9일 대동조선 (서울中區忠武路1街) 부사장 權雨申씨(51)로부터 공사도급을 주겠다며 8천만원을 편취했으며 82년8월30일에는 의료기납품업자 羅鍾喆씨(33)로부터 3백만달러상당의 의료기기 납품권보증금으로 8백만원을 편취하는등 모두 4억5천여만원을 사기했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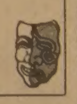
한편 成洛健·權記雄·金春起씨등 3명은 82년8월5일에서 9월사이에 崔모씨에게『무혐의 처분된 水原지검 사건을 번복시켜주겠다』면서 1천2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번에 구속된 일당6명은 서울汝矣島 대양빌딩 2층에 70여평을 월세로 임대받아 고급카피트및 값비싼집기로 호화사무실을 차려놓은뒤 朴昌燦씨는 전보사부 국장으로 행세해왔고 柳韓병원이 정부고위 공무원의 비호와지원아래 설립되는것처럼 가장해왔다.

또 주범 柳씨는 수시로해외를 드나들며 차관문서등을조작, 각종 사기행각을 벌여왔는데 이번에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달31일귀국직후 검찰에검거됐다.

法官과 명예

사표 던진 朴俊庸부장판사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法諺이 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뿐 그 이상의 사설이나 변명은 필요없다는 뜻이다.

전 대법원장비서관 독직사건과관련, 끝내 사표를 던진 당시 재판장 朴俊庸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45·사진)는 최근 며칠간 법관이라는 직책과 인간적인 고뇌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사법부전체를 위해 殺身成仁 해야겠다는 생각과 감내하기 힘든 인간적인 고통사이에서 괴로와하다 결국『문책인사란 있을수없는 처사』라며 터진 그의 울분.

처음 비서관독직사건이 터졌을때 한번도 누군가를 자신있게 책할수 있을까.

그는 허물이 없었기에 떳떳하게 처신하면서도 국민들이 자신은 물론 사법부전체를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만같아 괴로운 심정이었다고한다.

그가『사퇴수습』이라는 명분하에 대법원장의 사표종용을 받고 부당성을 지적한 것도 자리에 연연해서가 보다 사법부전체를 위해 시상충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것.

엄중하게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이 대법원에서 흘러나와 일부신문에 보도됐을 때까지만 해도 함구로 일관했다.

"누명쓴채 물러나게돼 괴롭다"

俞泰興대법원장이 대법원판사로 재직때 2년 가까이 재판연구관으로 가까이서 모셨던 의리도 그렇지만 사법부를 위해 입을 다물려는생각이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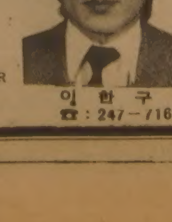
그는 최근『오늘이 마지막재판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한판에 이미 자신의 진퇴를 결정한듯 보였다. 어찌보면 이번 사표제출도 江景지원장으로 좌천된데 대한 불복이라기 보다는 대세에 따를수밖에 없는「개인」을 느낀탓인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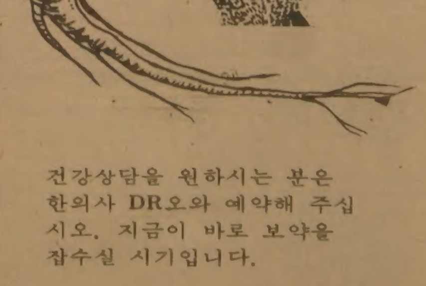
『언제고 재야로 나갈 자세가 되어 있는게 법관들이지만 누명을 쓴채 물러나게돼 괴롭다』─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신성한 법관직을 지키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동료 법관들에게 알려준 셈이다.

일부에서 신상발언없이 조용히 물러났더라면 더 돋보였을것이라고 안타까와하기도하지만「사법부전체의 명예와 신뢰」라는 이름아래 한 중견법관이 희생당한다는것은 뭔가 분명치못한것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는것은 의미가 없지않다. 【崔奎植기자】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 HILLCREST MALL
Don Mills Rd. & Steeles Ave. | 9350 Yonge Street
881-8230 |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 한 구
☎ : 247-7161
1575 WESTON RD.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萬富宮海鮮飯店
KUNG FU MAN RESTAURANT
133-135 Dundas St. West,
Toronto, ONT. M5G 1C4
TEL: 598-3658
사천요리 전문
⊙신장개업 특별봉사
특히 팔진두부, 게탕, 해삼탕, 면류, 각종 중화요리
평일 11-12시
Fri. 11:00-다음날4시까지
Sat.Sun. pm.2:00-다음날2시까지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내달 東京 韓日정기전 出戰
축구代表 18명確定

前대표選手 7명 주축
코치 李世淵씨 올림픽팀은 다시構成

◇李世淵코치

대한축구협회는 2일 한국대표팀코치에 李世淵씨(39·서울신탁은행코치)를 선임하고 오는 3월6일 東京서 열리는 제11회 韓日정기전에 출전할 대표선수 18명을 확정했다. 축구협회의 대표팀개편은 지난해 뉴델리 아시안게임서 日本에 역전패, 예선탈락의 치욕을 씻기위한것이지만 일부 대표급선수들이 소속팀의 해외전지훈련등으로 빠져있어 베스트를 뽑지못했다. 축구협회는 『이번대표팀은 한일정기전한게임을 목표로 구성했으며, LA올림픽에대비한 본격적대표팀은 오는3월12일부터 열리는 대통령배 전국대회를 통해 다시구성된다』고 밝혔다. 새로탄생한 대표진은 선수 개개인의 경기기록을 중심으로 부상여부등을 확인, 선발했는데 朴景勳 鄭鍾洙 權五孫(이상FB) 李興實(HB)

◇崔淳鎬

邊炳柱 崔淳鎬 咸鉉起(이상FW)등 7명의 전대표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있다. 지난 1월28일 趙潤玉씨를 대표팀의 새사령탑으로 선임한 축구협회는 1개월밖에남지않은 韓日정기전에대비, 대표선수들을 긴급소집하여

◇邊炳柱

◇朴英洙

강화훈련을 벌일 계획이다. 趙감독은 『이번 韓日정기전서 무조건 이겨야되겠지만 국내모든 선수를 대상으로하여 뽑지못해 아쉽다』고 말하고 훈련기간이 거의없이 韓日정기전에 출전하는데대해 매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역대 韓日정기전은 7승1무2패, 통산 韓日전적은 34승11무5패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지키고있으나 한국은 지난해 뉴델리아시안게임에서처럼 중요한경기서 고배를 마시는예도 더러있었다.

日本은 작년 아시안게임서 한국을 물리친 승세를 계속유지하려고 안간힘을 하고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집행부개편과 선수단구성지연등을 이유로 韓日정기전 연기를 日本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것. 한국대표팀의 평균나이는 23.9세(작년22.3세) 평균신장은 175.9㎝다.

축구협회는 전임코칭스태프급료를 감독월1백만원, 코치80만원으로확정하고 선수들은 코칭스태프의 능력평가에따라 최고30만원에서 최하10만원으로 정했다.

◇한국대표팀
▲GK=朴英洙(24·해룡) 崔仁榮(21·서울시청) ▲FB=朴景勳(22·한양대) 鄭鍾洙(22·고려대) 權五孫(24·서울시청) 金平錫(25·광운대) 金哲洙(32·포철) 韓文培(29·서울신탁은) ▲HB=李興實(22·한양대) 金景鎬(23·포철) 朴良夏(21·고대) 柳東春(29·기업은) 李吉龍(24·포철) ▲FW=邊炳柱(22·연세대) 崔淳鎬(22·광운대) 咸鉉起(20·고려대) 李太燁(24·국민은) 白鉉英(25·해룡)

◇한국대학선발팀
▲GK=徐錫範(22·건국대) 金顯泰(22·고려대) ▲FB=金聖基(22·한양대) 朴福浦(23·연세대) 李鍾和(20·인천대) 金基潤(22·관동대) 趙允煥(22·명지대) ▲HB=曺敏國(20·고려대) 蘇光鎬(22·한양대) 崔德柱(23·중앙대) 吳承錫(21·호남대) ▲FW=李敬南(22·경희대) 白敎守(21·한양대) 趙兢衍(22·고려대) 金鍾煥(21·서울대) 孟秀一(22·동아대)

美코너즈 프로테니스聯 랭킹1位 발표

【댈라스(美텍사스州)聯合】美프로테니스선수 지미·코너즈는 美프로테니스 연맹

한국, 9명이싸워 憤敗
主審오판 2명退場
泰 청소년축구

【방콕=本社국제전화】 한국 청소년축구대표팀은 1일 밤 방콕서 벌어진 泰國국제청소년축구대회 5일째 예선B조 경기에서 東歐의 강호 폴란드에 2-0으로패해 1승1패를 기록, 앞으로남은 3차전경기서 連勝을 거두지않는한 결승토너먼트진출이 어렵게 되었다.

한국은 힘과주력, 신장이 좋은 폴란드를맞아 두터운수비벽을치고 필사적으로 맞섰으나 토니 경기주심(濠洲)의 석연치않은 판정으로 전반40분에 HB 盧仁佑, 후반30분에 주장 文元根이 각각 퇴장 명령을받아 9명이 11명과 대결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악전고투 했다.

전반40분 濠洲 토니주심의 퇴장판정은 상식에 어긋난 오판이었다. 왼쪽 터치 라인을 타고 전진하는 폴란드선수를 盧仁佑가 뒤에서 차징하자 토니심판은 경고카드도 내밀지 않은채 퇴장명령, 경기가 10여분간이나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의코칭·스태프(柳鉉哲단장·朴鍾煥 감독)은 그라운드의 선수들을 불러 모은뒤 『퇴장은 말도 안되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대회본부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은 경기가 속행된 2분후인 전반 42분께 문전혼전중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아드리안에게 대각선슛을 맞아 1골을 잃었으며 文元根의 퇴장으로 9명으로 버틴 후반 40분에 다시 한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체력과 스피드가 뒤진 한국은 시종 수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어처구니없는 퇴장판정으로 2명을 잃음으로써 더욱 리듬을 잃고 완전 열세에 빠졌다.

이날 한국과 맞선 폴란드는 멕시코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6월) 유럽대표로 뽑힌 대표팀이었다. 싱가포르는 이날 오만을 3-1로 물리쳐 1승2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3일 오만과 대결하며 5일에는 泰國B팀과, 6일 멕시코와 예선최종전을 벌이게 된다.

◇제5일전적
▲B조
폴란드 2 (1-0, 1-0) 0 한국
(2승1무) (1승1패)
싱가포르 3 (1-1) 1 오만
(1승2패) (1무2패)

◇朴감독의 항의제스처 泰國 청소년 축구 한국—폴란드 대전 전반에서 경기주심이 한국 盧仁佑선수의 퇴장을 명령하자 朴鍾煥감독이 격렬하게 항의하고있다. 【방콕AP=聯合】

4개國際대회 참가
레슬링協 대표·常備軍 強訓계획발표

대한레슬링협회는 2일 84년 LA올림픽에서 최소한 금메달1개이상을 획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84년7월까지 2단계로 나눈 대표선수및 상비군강화훈련계획을 발표했다.

협회는 83년 1월부터 10월까지를 전반기로, 11월부터 84년7월까지 후반기로 나누어 2단계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대표팀은 메라컵스위스국제대회(2월17~18일·그레코로만형), 슈퍼챔피언십(3월4~5일·일본·자유형), 蘇聯세계선수권대회(9월22일~10월1일)에 각각 파견키로했으며 상비군은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8월4~7일·美國)에 보내 전력을강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협회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참패 원인이 스파링 파트너없는 훈련때문으로 분석, 대표선수 40명, 상비군40명을선발, 라이벌의식을 북돋우고 훈련토록했으며 대표팀 코치도5명, 상비군은 3명으로 각각증원키로했다. 대표선수와 상비군은 매달 1~2회씩 평가전을 가지며 승부근성과 정신력 배양을위해 공수훈련과 산악훈련, 심리및 생리학자들을 초빙, 정신강화훈련도 갖게된다.

次長級등 人事단행
서울올림픽 組織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일 국내·국제·사업지원 등 3개담당차장과 기획실장, 국장9명등 간부들에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차장 인사
▲국내담당 차장 崔禮燮 ▲국제담당 차장 金祥振 ▲사업지원담당 차장 朴世英

「겨울」이 없다
—프로야구 強訓현장을 가다—
OB베어스 (下)
少數精銳스카웃… 빈자리 알차게補強

◇전기시즌 50게임에서 「우승목표 35승」을 향해 훈련에 피치를 올리고있는 金永德감독.

다른 구단들이 1억원의 계약줄다리기로 시즌때보다 더한 진통을 겪는 동안 OB 베어스는 소문없이 새해 스카우트를 끝냈다. 소란을 피우며 흥정을벌일만한 연고선수 자체가없었기때문이다.

OB가스카우트한새식구는 외야수 朴鍾勳(상업은) 내야수 韓大化(동국대) 투수 張虎淵(동국대) 鄭善斗와(경리단) 등 4명. 당초입단대상이었던 李善雄은 최하위팀 三美로 양보했으며 鄭求善은 포기했다.

張明夫·朱東植·崔東原·金始眞·張孝祚등등 다른팀들이 보강했거나 계약흥정중인 스타들에 비교한다면 OB의 스카우트내용은 다소 빈곤한 편이다.

창단 첫해 未知의 투수 朴哲淳에게 모험을 걸었던 OB는 83년 시즌 尹東均·金宇烈·金裕東, 세 베테랑타자들의 방망이에 팀의 운명을 걸어놓고있다.

지난해와 달라질 것이없다. 그렇다면 모든 선수가 지난해와 같이 열심히 뛰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금년에도 尹東均·金宇烈·金裕東의 상위타선이 제대로 터져주기만한다면 큰 걱정이 없습니다』

金永德감독은 금년에도 노장들의 타순을 상위로 고정시켜놓고있다. 申慶植·楊世鍾이 그 앞뒤로 포진, 득점찬스를 만들고 이어가게 된다.

새로 보강한 선수중 朴鍾勳과 韓大化는 선배들을 제치고 레귤러자리를 넘보고 있다. 金감독은 플레이가 견실한 朴鍾勳에게 李根植(한양대卒) 李洪範과 함께 센터를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유격수 전문인 韓大化는 柳志烜·具千書·金光洙·楊世鍾등과 함께 2·3루사이의 내야수비중추로 활약케된다.

적어도 수비면에서 OB는 큰 걱정이없다. 투수왕국을 자처하는 OB는 22연승의 신화적인 기록보유자 朴哲淳을 비롯, 신인張虎淵·鄭善斗를 포함해서 투수10명을확보하고있다.

우완정통과 朴哲淳, 좌완 鮮于大泳·黃泰煥, 사이드·드로어 朴相悅·姜哲元…OB마운드의 강점은 저마다 특기를 가진 투수들을 고루 갖추고있다.

金감독은 강속구를 구사하는 桂澄鐵이 점차 컨트롤을 찾아가고 잘 다듬어진투수 張虎淵이 보강되어 더욱 마음든든하다. 鄭善斗에 대해서는 아직 더 조련해본후 기용여부를 결정하겠단다. 1루수였던 李根植의 피칭연습은 슬럼프에서 건져내려는 코칭·스태프의 배려일뿐이라는것.

『스카우트선수가 적긴 하지만 요소요소의 빈자리를 메워 오히려 알찬 보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金永德감독은 지난달26일부터 「禁酒令」을 선포하고 우승안정권인 35승을 향해 지난해보다 한층 강도높은 훈련으로 전력을 다져가고있다. 【方錫樹기자】

◇朴哲淳

◇朴鍾勳

◇韓大化

◇코칭 스태프

감독	㊿	金永德	(47)
코치	㊾	金星根	(41)
	㊽	李廣煥	(35)

◇선수명단

위치	배번	이름	나이	키	左右	前소속
투수	㉑	朴哲淳	27	182	右	美프로
	⑨	朴相悅	28	172	″	포철
	㉙	鮮于大泳	26	180	左	제일은
	㉓	姜哲元	25	175	右	농협
	⑱	金賢洪	27	175	″	롯데
	⑮	黃泰煥	31	170	左	한전
	⑪	桂澄鐵	29	183	右	롯데
	㉛	張虎淵	22	172	″	동국대
	㉘	鄭善斗	23	185	″	경리단
	㉘	李根植	25	179	左	롯데
포수	㉕	曺凡鉉	23	177	右	인하대
	㉒	金卿文	25	174	″	고려대
	⑫	鄭宗鉉	24	174	″	한양대
	②	金鎭弘	21	170	″	인하대
내야	⑲	申慶植	21	188	左	상업은
	⑳	具千書	19	173	右	″
	④	金光洙	25	169	″	농협
	⑯	楊世鍾	25	181	″	제일은
	⑥	柳志烜	28	174	″	상업은
	⑤	韓大化	22	177	″	동국대
	㉔	朴鍾浩	20	180	″	대전고
외야	⑩	尹東均	34	176	″	포철
	③	金宇烈	34	175	″	제일은
	⑧	金裕東	28	177	″	한국화
	⑦	李根植	23	168	左	한양대
	①	朴鍾勳	24	176	″	상업은
	⑭	李洪範	30	171	右	철도청
	⑰	鄭赫鎬	23	176	左	포철
	㉗	具載書	19	173	右	신일고

조명탑
濠주심의 判定은 납득못할 橫暴
한국팀 抗議후 경기속행은 다행

경기장에서 심판판정은 절대적이며 비록 그판정이 공정성을 잃은 오판이라 하더라도 절대복종해야 한다는것은 운동선수들이 너무도 잘 알고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1일밤 방콕 청소년 축구대회 한국—폴란드 경기의 주심으로 나온 토니·보스코비치씨(濠洲)의 어처구니없는 횡포를 한국선수들과 국내팬들은 과연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처벌에대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것만이 스포츠맨십일까.

濠洲 주심의 오판 횡포는 그동기가 고의적이건 아니건 심판자질향상이 스포츠발전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국내외에서 말썽이되고 있는 경기장 폭력을 뿌리뽑기위해서는 먼저 심판들이 양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심판의 권위와 聖域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자질향상이 따르지 못하면 경기장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막기 어렵다.

축구에서 상대의 등뒤에서 난폭하게 공격하는 「비하인드·차징」은 물론 반칙이다. 한국의 盧仁佑가 폴란드 선수의 발을건 행위는 분명히 반칙이었지만 이런 반칙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프리킥을 주는것이 통례이고 매우 엄격히 처벌해서 경고(옐로카드)의 범위를 넘지못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고 정도면될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퇴장을 명령했으므로 한국코칭·스태프의 항의는 정당했다고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폴란드 선수들의 기량이 한국보다 우세했으므로 盧仁佑 文元根이 퇴장하지 않았더라도 고전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승패를 떠나 한국은 주심의 농간에 희생이된 셈이다.

보스코비치 주심의 고의적 여부는 분명치않다. 이번 퇴장사건과 관련, 한국선수단코칭·스태프의 10여분간 항의후 경기속행을 선수들에 지시한것은 잘한일이었다. 만약 도중에 경기를 포기했더라면 비난의화살은 심판이 아니라 한국팀에 돌아갔을것이다.

張吉山 <1656>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16)

여환은 아기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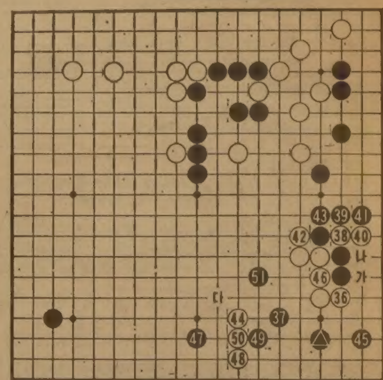
『쉬이, 이 사바세계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어린아기의 손을 놓았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그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여환이 말하였다.

『여러분, 아까 어느 향도께서 노래한 것처럼 석가님은 미륵님 보다 앞서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수천보살 스님들 남녀노소의 신도들 마왕 야차 용 잡신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장광설을 펴셨는데, 거룩한 보살의 길고도 오묘한 자비의 법을 말씀하셨읍니다. 대중 가운데 있던 미륵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백만억의 법문을 대번에 얻으셨읍니다. 미륵님은 원래 석가님의 젊은 제자로 두분은 서로 깊이 사랑하였읍니다. 석가님은 미륵님을 일컬어, 아일다야 너는 가장 완전한 부처를 이루리라 하셨지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의아하여 석가님께 물었읍니다. 아일다는 이렇게 범부의 몸 그대로여서 비록 출가를 하였으나 선정을 닦지 못하여 번뇌를 끊지 못하였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사람이 하릴없이 성불할 것이라 하셨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장차 어느곳에 태어나 어떤 중생들을 그 어떻게 교화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지요. 이제부터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너희들에게 더 이상 없이 가장 옳게 모든깨달음을 이루어낼 미륵불에 대하여 말하리라. 미륵은 나보다 먼저 목숨을 마치고 반드시 도솔천에 왕생할 것이니라. 도솔천 오백만억의 천자들은 멀지않은 내세(來世)에 가장 완전한 부처로 이루어질 미륵을 위하여 온갖 준비로 공양을 드리게 될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 석가님과 미륵님은 조금 전의 이 천도(賤道)와 잠든 아기님과의 처지와도 같읍니다. 석가님께서 그 전생에 사바세계에 태어나기 전부터, 즉 도솔천에 계실 적부터 석가님과 미륵님은 스승과 제자 사이셨읍니다. 미륵님과 만나는 인연에는 여러가지가 있지요. 어떤이는 경전을 읽고 외고 남에게 알려주며 법을 지니게 한 공덕 때문이오, 또 어떤 이는 옷과 음식을 남에게 베풀고 계행과 지혜를 닦은 공덕으로써이고, 어떤이는 부처님께 봉공 공양하여서이며, 승가에 공양하고 자비를베푼 덕이며, 어떤 이는 중생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고 깊은 자비심을 일으켜 스스로 그 괴로움을 대신받고 저들에게 즐거움을 돌려준 공덕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인욕과 계행을 지킨 공덕, 법회를 열고 강설한 공덕, 대중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 이러한 공덕이 있어 미륵님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덕을 쌓지못한 우리 같은 힘도 없고 가진것도 없는 백성들은 미륵님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미륵님과 만나는 인연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인연이 있읍니다』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 第3譜 36~51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李相澈 <1勝1敗>
黑(6段) 張秀英 <2勝0敗>



白 兩困馬 가능성

전보에서 지적했던것처럼 白36까지 된 형은 『오랜만에 나타난 정석』. 黑이 굳이 「재래식」을 택한이유는 아마도 우변을 확보하기 위한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8분간 차분히 생각한 끝에 둔 黑37은 국후평이 좋지않았다. 『이곳은 어차피 白38, 40의 상용수법으로 봉쇄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黑돌을 위쪽으로 향하게할 필요가 없으니 차라리 직접49에 벌려야 한다』고.

白44는 7분. 고심을 한 보람으로 좋은 자리를 찾아냈다. 그러나 白46으로 서둘러 맞은 수가 아리송했다. 보다시피 黑이 손을 빼고 47로 협공한 때문에 白이 의표를 찔렸기 때문. 그것보다 문제로 지적된것은 『같은값이면 「가」쪽을 젖혀야 나중에 黑두점을 잡더라도 46자리를 비워 둔채 白 「나」로 잡게되어 유리했다』는것. 돌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하는 전문기사들은 이같은 하찮은 점에까지 신경을 기울이는데 보통 아마추어로서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그렇고 「다」의 곳을 외면한 白48이 무리수. 당장 黑49, 51을 당하여 돌이 무거워졌고 46까지의 6점과 더불어 양곤마비슷한 꼴이되었다. 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一凡】

83년도 신세계 단체관광계획

	성지순례	구라파관광
출 발	1983년5월6일(금)	1983년7월23일(토)
귀 환	5월19일(목)	8월 8 일(월)
기 간	14일	17일간
방문지	성지 7박8일 애굽 2박3일 로마 3박4일	8개국 영국, 화란, 서독, 오지리, 이태리, 모나코, 스위스, 불란서, 이태리
요 금	$2,250(2인1실)	$1,960(2인1실)
신 청	1983년3월31일 잔액불입	등록 : 1983년5월31일 $300불입 마감 : 6월25일 잔액지불
기 타	한국인 안내자 동반 교황알현 알선	한국인 안내자 동반

■ 상기요금은 토론토 기준이며 타도시에서도 합류 가능합니다.

여행을 즐기십시요.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IATA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 - 7525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금: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화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회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총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921-7486(R)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문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전기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충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불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회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광고문의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룸 메이트 구함.(1Bed Room)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782-9777(저녁 5시30분이후)

저녁때 일할 파트타임 Hairstylist 구함.
Knob Hill Farms, 222 Lansdowne Ave.
전화 : 531-1011 Manager

출퇴근하시면서 3살난 아이 돌보아주실 분.
주6일(화요일-일요일), 월요일 쉼. 다운타운지역
전화: 368-6544 Mrs. 리

적은「레스토랑」맡아서 하실분. ◉약간의 경험이 있으시면 더욱 좋음.(부부가 운영 가능함) ◉보증금: $1,000
695 The Queensway 전화: 251-1423(오후7시이후 요망)

영어할수 있는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주5일. 교통 편한곳임. 다운타운 지역
전화: 699-3953

풀타임, 파트타임 도넛숍에서
밤일 하실분 구함.
전화: 977-0303

밴운전 할수있고 사닥다리 올라갈수 있는 미혼남자.
그림 그릴수 있으면 좋음. 1일 8시간 근무.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Mr. Lee　Scarboro, Unit 9 rear.

입주하셔서 애기와 가사 돌봐주실
할머니 구함.
전화 : 266-6355

여자 캐쉬어 급히 구함.
영주권 가진 자.
전화: 691-6768 Mr. 김

Tavern 에서 일하실 경험 있은
젊은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491-4058

사진식자 기술자(여자), 또는 배울분 급구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497-9180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남자친구를 찾고 있읍니까?
24살의 남자가 18세~30세 여성을 찾고 있읍니다.
전화: 532-3465 Marshall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Building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Ossington & Bloor 지역
전화: 531-1023, 851-4116

Hardware 비지네스 $25,000
좋은위치, 넓은 파킹장, 벤드및 장비양호
전화: 883-1721 Harry Pridham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2층에 살림집 있고 렌트 월 $600, 2년+5년 옵션.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 247-1090

◉연평균 주매상 약4천불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렌트: $450, 4년+5년 이층아파트 입주 가능
권리금: 3만5천.(전화 225-1204)

Soft Ice Cream 머신 일절 매매.
★산지 2년 됐음.
전화: 961-3517

매매 (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 242-2630 Mr. Park(밤 10시30분 이후)

타사업 운영으로 인해 아동복 전문점 급매.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꼭 흥미있는 분만 연락요망.
전화 : 530-0023

◉쇼핑 Mall　Smoke Shop
좋은 리스. 아스킹: $55,000
◉새로 시작한 Donut Shop
밝은 전망. 아스킹: $60,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5,500
★535-0028 Mr. 김

COIN LAUNDRY
28 Washers, 2 Heavy Duty Washers, 11 Dryers,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ust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ly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50,000(one price)
Address: 3412 Dundas St. W. Tor.(in Plaza)
Telephone: 762-1264

◉몬트리얼 영어지역에 위치한 수퍼마켓 매매
좋은 리스 드림. 건물 매매도 가능함.
연매상: 80만불, 현주매상: $14,000
윗층에 아파트 4½ Room 있음.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실 메니저 구함.
전화 : 1-514-481-3291 Mrs. 김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265-9000

Smoke + Gift 가게 팝니다.-벌링턴지역
◉$400,000 Turn over/연매상
◉7년리스 $1,100/월렌트.
◉Asking: $81,900.
Many Extra Income, Lottery Video
581 Brant St.　전화: 1-637~2609

Tuck Shop 급매(해밀턴 지역) ◉300세대 성인아파트. 인근 타운하우스. ◉드라이크리닝-사진취급. ◉안전사업, 입주 가능. 아스킹: $19,000+스탁.　1-561~1911 Mrs. 정(저녁 6시

해밀턴에 성업중인 가게 급매.
전화 : 1- 560-0612 Jimmy (오후2시에서 밤12시)

▲모텔: 나이아가라 지역. 13 Units.
35 Units 과 237 의자있는 타번.
49 Units-높은 소득. 135 Units-좋은 장래.
▲타번: 400 의자-높은 인칸. 110 의자-좋은 지역.
Century 21. Darel Properties Inc. Member Broker.
Niagara Falls. Ont. 전화: (416)356-2121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타운하우스 렌트 혹은 매매. 3 Bed Rm.
쇼핑쎈타및 학교 지하철 가까움. 동부 한국식품 근처.
렌트: 월 $630.　전화 : 439-4885

방 하나 세놓음.
◉월: $150
전화: 466-2455(저녁6시 이후) Mrs. 조

가게 렌트.(약500sq. ft.) ◉렌트: 월650
꽃가게 그로서리 적합. 다운타운.신개발지역.
전화: 766-4504, 493-9599, 365-1489 다니엘

2 Bed Rm. 아파트 써브렛.(3월1일부터 입주 가능)
Queen & Lansdowne. 써브웨이 가까움.
렌트: 월 $402. 전화: 537-7624 Mr. 이(오후 7시이후)

아파트 렌트. ◉1Bed Rm. 독신. 월 $190
◉2Bed Rm. 부부. 월 $290
전화: 766-4504, 493-9599, 365-1489 다니엘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1440 Bathurst St. (21 Vaughan Rd.)
전화 : 657-1785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섬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19 MISS KOREA 83

미스KOREA선발대회

82년도 캐나다 미스·코리아 진 함승희양

때: 83년 4월23일 (토)

곳:힐튼호텔 대강당
(토론토 하버캣슬)

1983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 가 신 청 서

1. 성 명:
2. 주 소:
3. 전 화:
4. 생년월일:
5. 특 기:
6. 학 력(최종학교명):
7. 직 업:
8. 신 장: 인치
   체 중: 파운드
   바 스 트: 인치
   웨이스트: 인치
   히 프: 인치

-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 ●연 령 : 만17세부터
-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 ●신청마감 : 1983년 4 월17일 하오 5 시
- ●의 상 : 수영복, 이브닝드레스, 한 복
-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 (416) 533~2361-4
- ●기 타 : 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함.
-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 포함)

주최 : 토론토 한국일보사

※모국결선대회 : 5월14일(토)·서울 세종문화회관

후원 : 한인연합회 · 토론토한인회